

발간등록번호
11-1390802-000965-01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2014)

마 상 진 연구 위원
박 대 식 선임연구위원
박 시 현 선임연구위원
최 윤 지 연구 관
최 용 욱 연구 원
남 기 천 연구 원

본 보고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명: 귀농·귀촌 유형별 정착실태 및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방안연구, 세부과제번호:PJ009983)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연구진

연구책임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연구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윤지	연구관	(국립 농업과학원)
	최용욱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기찬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요 약

- 2014년 귀농·귀촌자 장기추적 조사(1년차 조사)에서는 귀농·귀촌 과정상의 특성, 경제활동 실태, 지역사회활동 실태, 귀농·귀촌에 대한 자기 평가 등을 조사하였음. 지역별 귀농·귀촌자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된 1,209명의 조사협조자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1,000명이 응답함.

- 귀농·귀촌 과정 특성
 - 귀농·귀촌 준비 없이 귀농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더 적었음. 전 직업으로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 들어 순수 도시출신자, 행정·경영·관리자나 사무직이 점차 늘고 있었음. 귀농 초기에는 혼자 이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합류하는 경향을 보였음. 귀농·귀촌 동기로 전원생활이나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한 것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연령대가 높고, 고학력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많았음.
 - 귀농·귀촌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여유 자금 부족, 영농기술 습득의 어려움, 농지 구입의 어려움, 생활 여건(의료·복지·문화·쇼핑)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이 있었음. 귀농·귀촌자들은 정착과정의 성공적 정착의 요인으로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정부·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귀농·귀촌 정책이 잘되어 있는 곳에 귀농·귀촌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음.
 - 귀농·귀촌인들은 주로 생활이 편리하면서도 농촌의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읍면사무소 소재지 인접지역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었음.

○ 경제활동 실태

- 귀농·귀촌자 대부분(3/4)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 이외 타 분야 경제활동에만 종사하는 경우(13.3%), 무직(텃밭 정도의 취미 농업 포함)(10.6%)는 많지 않았음. 농업 종사자는 향후 영농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대다수가 생산 농업 이외에 농산물 판매(60.7%), 농산물 가공(40.8%), 농촌관광(10.8%) 등 농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밖에 자영업, 농업 외 직장, 농외 시간제 노동, 농업 노동 등에 참여하고 있었음.
- 경제활동 장애요인으로서는 자본금 부족(토지 확보 어려움 포함),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음.
- 연 가구소득은 1천만 원 미만이 19.7%, 1천만~2천만 원이 22.4%, 2천만~3천만 원이 18.6%, 3천만~5천만 원이 21.8%, 5천만 원 이상이 17.4% 였는데,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젊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음.
- 귀농·귀촌 후 소득변화를 보면 감소한 경우(65%)가 증가한 경우(13.8%)보다 훨씬 많았는데,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소득이 많이 줄었음. 하지만 향후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진 응답자(19.1%)보다 증가한다고 보는 귀농·귀촌자(55.6%)가 훨씬 많았음.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젊을수록, 도시출신자보다 농촌출신자가 미래 소득 전망이 긍정적이었음.

○ 지역사회활동 실태

-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조사한 결과 ‘갈등 없음’(38.4%)도 많았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33.9%), ‘집이나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24.3%),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15.4%)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 고학력자일수록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 ‘모임 참여 문제’, ‘영농방식의 차이’ 등으로, 도시출신자는 농촌출신자보다 ‘재산권 침해’와 ‘선입견과 텃세’ 등으

로 갈등을 겪었음. 하지만 귀농·귀촌자들은 70% 이상이 주민들과 주 1회 이상 왕래하는 등 마을 주민들과의 적지 않은 교류를 하고 있었음.

- 대다수 귀농·귀촌자(66.8%)가 지역사회활동 참여 경험이 있었는데, 모임 종류별로 보면 농민단체, 공익봉사활동 등에 대한 참여는 다소 적은 반면, 마을회의나 행사, 농업인 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 친목단체 참여는 활발한 편이었음.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친목 도모’, ‘사회적 인맥 확대’, ‘사회 봉사’, ‘자아실현(취미, 재능개발)’ 등이 많았음. 지역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으로는 ‘참여 관련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이 가장 많았음.
- 귀농·귀촌자가 마을·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 가능한 분야로는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 분야 봉사’(33.5%)가 가장 많고, ‘멘토링·상담 및 학교·평생 교육 분야’(32.2%),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25.7%), ‘상품 기획·마케팅’(25.1%), ‘기능, 기술 분야 실기 지도’(23.7%), ‘문화·예술 분야’(17.0%), 그 밖에 고객센터(11.1%), 체육 분야(8.7%), 보건·건강 분야(8.3%) 등이 있었음.

○ 귀농·귀촌에 대한 자기 평가

- 자신의 귀농·귀촌이 성공적이다(45.5%)라는 평가가 실패이다(5.1%)라는 평가보다 월등히 많았음.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공적인 편이라는 비율이 점차 늘어남.
- 귀농·귀촌인들의 분야별 성취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의 만족, 지역사회와의 어울림 등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경제적 소득과 도시에서의 자신의 경험 활용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었음.
- 귀농·귀촌인 중 도시로의 역이주 의향이 있는 사람(8.6%)은 매우 적었고, 대다수(72.1%)는 그럴 의향이 없었음. 도시로 이주하려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38.2%)가 가장 많았고, ‘생활편의시설 때문(시장, 병원, 문화센터 등)’(26.5%), ‘주택문제(노후, 규모, 시설) 때문에’(8.8%) 등이 있었음.

차 례

제1장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1
- 2. 조사 방법 2
- 3. 자료 분석 8

제2장 조사결과

- 1. 귀농·귀촌 과정 9
- 2. 경제활동 실태 27
- 3. 지역사회활동 실태 51
- 4. 귀농·귀촌에 대한 평가 63

제3장 요약 및 시사점

- 1. 요약 73
- 2. 시사점 81

부록

- 1. 귀농·귀촌 실태 조사지 83

표 차 례

제1장 조사개요

표 1- 1. 귀농·귀촌 실태조사(1차 조사) 문항 구조	4
표 1- 2. 응답자 특성	7

제2장 조사결과

표 2- 1.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준비기간	11
표 2- 2.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전 직업	12
표 2- 3.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시 가족 이주	14
표 2- 4.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이유(복수응답)	16
표 2- 5.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유형	18
표 2- 6.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장소 선택이유(복수응답)	20
표 2- 7.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장애요인(복수응답)	22
표 2- 8.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정착과정 중요요인(복수응답)	24
표 2- 9.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거주지 유형	26
표 2-10.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주요 경제활동	28
표 2-11.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주력품목	30
표 2-12.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농산물 판매액 규모	32
표 2-13.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계획	34
표 2-14. 생산 농업 이외의 소득 활동	35
표 2-15.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농외 경제활동 참여비율	36
표 2-16.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희망 경제활동(복수응답)	38
표 2-17.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동기	40
표 2-18.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장애요인(복수응답)	42
표 2-19.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농업소득	44

표 2-20.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가구소득	46
표 2-21.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소득 변화	48
표 2-22.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소득 전망	50
표 2-23.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주민 왕래	52
표 2-24.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주민갈등 요인(복수응답)	54
표 2-25.	지역 모임이나 활동 참여 정도	55
표 2-26.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활동참여 비율(복수응답)	56
표 2-27.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지역사회활동 참여 이유(복수응답)	58
표 2-28.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복수응답)	60
표 2-29.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지역발전 기여 분야(복수응답)	62
표 2-30.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평가	64
표 2-31.	분야별 성취 정도	65
표 2-32.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성과(5점척도)	66
표 2-33.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도시 이주 의향	68
표 2-34.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이주 계획 시기	70
표 2-35.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도시 이주 이유	72

그림 차례

제1장 조사개요

그림 1- 1. 귀농·귀촌자의 귀농·귀촌 연도	7
그림 1- 2. 자료처리 절차	8

제2장 조사결과

그림 2- 1. 귀농·귀촌 준비기간	10
그림 2- 2. 귀농·귀촌 전 직업	11
그림 2- 3. 귀농·귀촌 시 가족 이주 여부	13
그림 2- 4. 귀농·귀촌 이유(복수응답)	15
그림 2- 5. 귀농·귀촌 유형	17
그림 2- 6. 귀농·귀촌지 선택 이유(복수응답)	19
그림 2- 7. 귀농·귀촌 장애요인(복수응답)	21
그림 2- 8. 귀농·귀촌 정착과정의 중요요인(복수응답)	23
그림 2- 9. 실 거주지역	25
그림 2-10. 귀농·귀촌 후 주요 경제활동	27
그림 2-11. 판매액이 가장 많은 주력품목	29
그림 2-12. 귀농·귀촌 후 농산물 판매액 규모	31
그림 2-13. 향후 영농규모 확대 계획	33
그림 2-14. 향후 희망 경제활동 분야(복수응답)	37
그림 2-15. 희망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	39
그림 2-16. 희망 경제활동 장애요인(복수응답)	41
그림 2-17. 가구원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	43
그림 2-18. 지난 1년간 소득 합계	45
그림 2-19. 귀농·귀촌 후 소득 변화	47

그림 2-20.	향후 소득 전망	49
그림 2-21.	마을주민들과 왕래 빈도	51
그림 2-22.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요인(복수응답)	53
그림 2-23.	지역사회활동 참여 이유(복수응답)	57
그림 2-24.	지역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복수응답)	59
그림 2-25.	마을·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 분야(복수응답)	61
그림 2-26.	귀농·귀촌 성공 정도	63
그림 2-27.	도시 이주 의향	67
그림 2-28.	이주 계획 시기	69
그림 2-29.	도시로 이주하려는 이유	71

제 1 장

조 사 개 요

1. 조사 목적

- 기존 농업종사 인구의 고령화 및 농가 수 감소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 희망 등 도시민들의 개인적 열망과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추진 등으로 매년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전국 농가 수: 1,177천호('10) → 1,163천호('11) → 1,151천호('12) → 1,142천호('13)
 - 농가경영주 연령('12): 60세 이상 65.5%, 65세 이상 51.3%
 - 귀농·귀촌: 3,615가구('10) → 6,541('11) → 11,220('12) → 10,923('13)
 - 귀촌: 452가구('10) → 3,962('11) → 15,788('12) → 21,501('13)
-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 수요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09년 '귀농·귀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 종합대책에는 귀농·귀촌 추진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 농산업인턴 지원 확대, 주택문제 해결 지원,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신용보증 지원, 농촌정착 지원, 농식품업과 농촌생활 가치 발견 홍보, 사후 관리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 이후 추진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 및 귀농·귀촌의 다양한 유형별 정착 실태 파악이 필요함.
 -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 이후 5년이 흘러가는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투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이뤄졌고, 이를 통해 어떤 활동들이 발생했고, 그 성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 다양한 개인 특성 및 귀농·귀촌 목적(품목 포함)과 경로 유형 등 다양한 유형별로 경제활동(농업, 비농업)과 사회활동 그리고 삶의 질 여건(교육, 문화, 복지) 등의 다각적 관점에서의 실태 파악을 통해 확산되는 귀농·귀촌 정책 사업의 정교화·효율화 시도

- 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투입되면서,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자 함.
 - 귀농·귀촌의 경로, 귀농·귀촌자의 영농을 포함한 경제활동 실태, 지역사회 활동 실태, 교육 및 삶의 질 전반의 실태 그리고 각종 심리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함.
 - 2014년 귀농·귀촌자 1차 실태조사에서는 가구 및 거주지 현황, 귀농·귀촌 경로, 귀농·귀촌 시기, 귀농·귀촌 준비경험, 지역결정요인 등 귀농·귀촌 기본실태와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에 대한 종합 실태를 파악하였음.

2. 조사 방법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2009~2013년 귀농·귀촌 통계에 따른 지역별 귀농·귀촌자 분포를 고려하

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 현지 통신원, 귀농사모, (사)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귀촌 교육기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관련 지자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귀농·귀촌자 2,601명 명단을 확보함.

- 유관 기관 등을 통해 확보된 귀농·귀촌자 명단을 기초로 이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조사에 응하고자 하는 1,209명의 조사협조자를 확정함.
-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28일까지 우편조사를 실시함. 1,209명의 조사협조자 중 1,000명이 응답함(유효 응답률 82.7%).

2.2. 조사 문항

- 조사 문항은 귀농·귀촌 과정,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귀농·귀촌에 대한 평가, 개인특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귀농·귀촌 과정 영역에서는 귀농·귀촌 시기, 준비기간, 귀농·귀촌 전 거주지와 직업, 가족 이주 여부, 귀농·귀촌 유형, 귀농·귀촌지 선택 이유, 장애요인,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중요요인 등 귀농·귀촌 기본실태를 파악
 -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주요 경제활동, 주력품목, 영농규모, 확장계획, 농외소득 활동, 희망활동, 경제활동 장애요인, 농업소득 비중, 소득변화와 전망 등 귀농·귀촌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
 - 지역사회활동 영역에서는 주민왕래 및 주민갈등 이유, 지역모임활동 현황, 참여 이유와 장애요인, 기여 분야 등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활동 실태를 파악
 - 귀농·귀촌에 대한 평가 영역에서는 귀농·귀촌인 스스로가 귀농·귀촌에 대한 평가 및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도시이주 의향 유무 및 시기 및 이유 등을 파악

- 개인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학력 등 개인 인적사항과 주거 종류, 자기집 유무, 실제거주 위치 등 거주지 정보를 파악

표 1-1. 귀농·귀촌 실태조사(1차 조사) 문항 구조

영역	세부문항	문항번호	
귀농 귀촌 과정	귀농·귀촌 시기	1	
	귀농·귀촌 준비기간	2	
	귀농·귀촌 전 거주지	3	
	귀농·귀촌 전 직업	4	
	가족이주	5	
	귀농·귀촌 이유	6	
	귀농·귀촌 유형	7	
	귀농·귀촌지 선택 이유	8	
	귀농·귀촌 장애	9	
	귀농·귀촌 과정 중요요인	10	
경제활동	주요 경제활동	11	
	주력품목	12	
	농산물 판매액 규모	12-1	
	영농 규모	12-2	
	영농 규모 확장	12-3	
	농외소득 활동	가공	13
		판매	
		관광	
		자영업	
		농외 직장	
		농외 시간제	
	농업 노동		
	희망활동	13-1	
	희망활동 동기	13-2	
경제활동 장애	13-3		
농업소득 비중	14		
가구소득	14-1		
소득변화	14-2		
소득전망	14-3		

영역	세부문항		문항번호
지역사회 활동	주민왕래		15
	갈등 이유		16
	참여단체		17
	지역모임 참여	마을회의	17-1
		영농조직	
		봉사활동	
		여가문화	
		농민단체	
		친목단체	
		종교활동	
		농업교육 귀농·귀촌자모임	
참여 이유		17-2	
참여 장애요인		17-3	
기여 분야		17-4	
귀농 귀촌에 대한 평가	귀농·귀촌 평가		18
	귀농·귀촌 성취	행복, 만족	19
		경제안정	
		가족화합	
		마을적응	
		생태가치 지역기여	
	도시이주 의향		20
	이주 시기		20-1
이주 이유		20-2	
개인특성	연령		P1
	성별		P2
	결혼		P3
	주거 종류		P4
	자기집		P4-1
	동거 가족		P4-2
	실제거주 위치		P4-3
	학력		P5
	농업계학교 졸업		P6

2.3.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일반특성으로 귀농·귀촌 전 거주지, 현 귀농·귀촌 지역, 학력, 성별, 연령, 귀농·귀촌 연도 등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귀농·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강원권 거주자가 58.6%, 경상권 거주자가 20.9%, 전라권 거주자가 8.0%, 충청권 거주자가 6.8%였음.
- 현 거주지의 지역별 분포는 경상권 거주자가 37.6%, 전라권 거주자가 28.3%, 충청권 거주자가 19.1%, 경기·강원권 거주자가 15.0%로 모집단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음.
 - ※ 2009~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경상권 귀농·귀촌자가 35.7%, 전라권 27.7%, 경기·강원권 16.9%, 충청권 17.3%였음.
-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82.0%였고, 학력별로는 대졸이 44.6%, 고졸이 27.6%, 전문대졸이 12.5%, 대학원졸 이상이 9.3%, 중졸 이하가 6.0%였음.
- 연령대별로는 51~60세가 42.6%, 41~50세가 29.1%, 61세 이상이 19.5%, 40세 이하가 8.8%였음.

표 1-2.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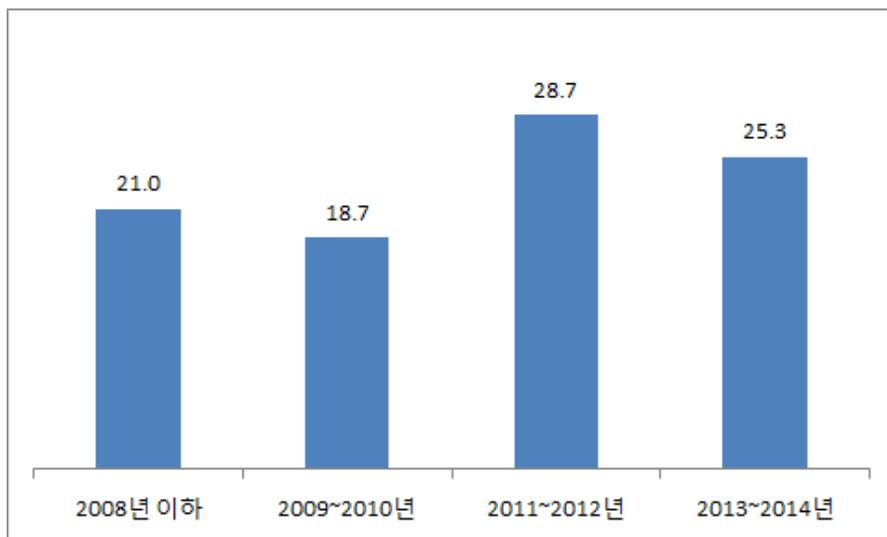
단위: %

개인특성		분포	개인특성		분포
귀농 귀촌 전 거주지	경기·강원	58.6	귀농 귀촌 지역	경기·강원	15.0
	충청	6.8		충청	19.1
	전라	8.0		전라	28.3
	경상	20.9		경상	37.6
학력	중졸 이하	6.0	성별	남	82.0
	고졸	27.6	연령대	40세 이하	8.8
	전문대졸	12.5		41~50세	29.1
	대졸	44.6		51~60세	42.6
	대학원 이상	9.3		61세 이상	19.5

○ 귀농·귀촌 연도별로는 ‘2008년 이전’이 21.0%, ‘2009~2010년’ 18.7%, ‘2011~2012년’ 28.7%, ‘2013~2014년’ 25.3% 등이었음.

그림 1-1. 귀농·귀촌자의 귀농·귀촌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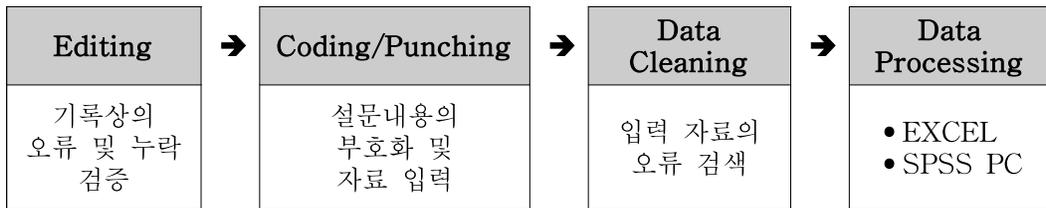
단위: %



3. 자료 분석

-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편집 → 부호화 → 정제 과정’을 거쳐 통계프로그램인 SPSS, EXCEL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되었음.
- 조사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인식차이를 정리하였고, 일부 문항은 각 문항을 종속변수로, 응답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인식을 비교하였음.

그림 1-2. 자료처리 절차



제 2 장

조 사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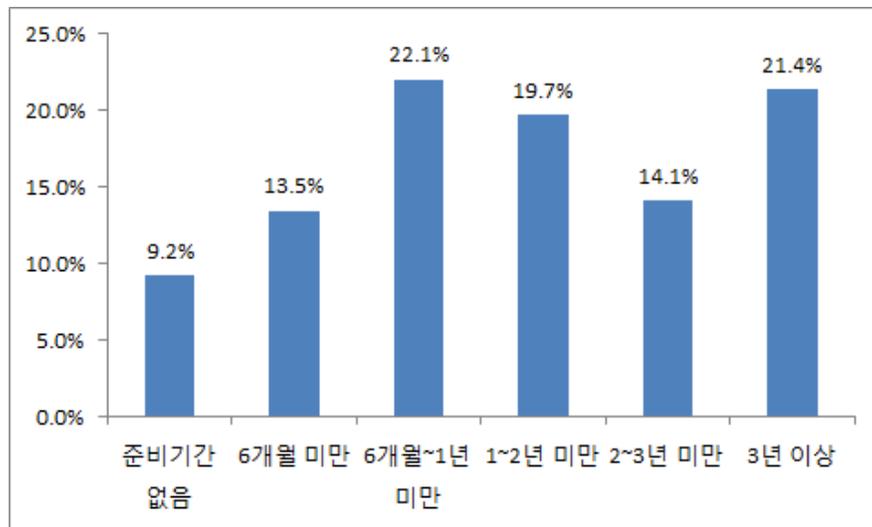
1. 귀농·귀촌 과정

- 귀농·귀촌 준비기간, 가족이주 여부, 귀농·귀촌 동기, 장소 선택 요인 등과 함께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정착과정에서의 중요 요소 등을 파악함.

1.1. 귀농·귀촌 준비기간

- 귀농·귀촌인들의 귀농·귀촌 준비기간을 조사한 결과 ‘준비기간 없음’이 9.2%, ‘6개월 미만’이 13.5%, ‘6개월~1년 미만’이 22.1%, ‘1~2년 미만’이 19.7%, ‘2~3년 미만’이 14.1%, ‘3년 이상’ 21.4%였음.

그림 2-1. 귀농·귀촌 준비기간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준비 없이 귀농·귀촌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준비기간 없음’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14.0%지만, 2009~2010년은 12.9%, 2011~2012년은 9.2%,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3.1%로 점차 낮아졌다.
- 연령대가 높을수록 준비기간이 길었다. ‘준비기간 없음’이 40세 이하의 11.1%, 41~50세가 10.7%, 51~60세가 8.3%, 61세 이상이 7.7%였다. 반면 ‘2년 이상’ 준비자가 40세 이하의 23.5%, 41~50세가 29.8%, 51~60세가 38.1%, 61세 이상이 43.7%였다.
- 도시출신자의 준비기간이 길었다. ‘준비기간 없음’이 도시출신의 경우 7.1%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9.1%, 농촌출신의 타지역귀농자는 15.3%였다. 반면 ‘2년 이상’ 준비자는 도시출신이 43.9%로, 농촌출신 고향귀농자(35.6%), 농촌출신의 타지역귀농자(28.8%)보다 많았다.

표 2-1.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준비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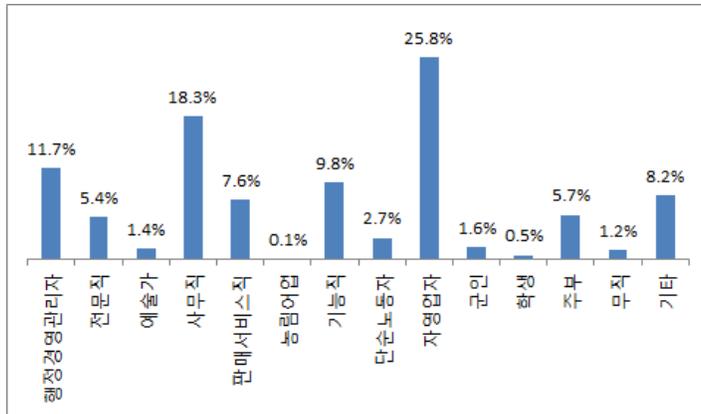
단위: %

		준비기간					
		준비기간 없음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14.0	15.5	21.3	19.3	11.6	18.4
	2009~2010년	12.9	10.2	22.0	15.1	14.5	25.3
	2011~2012년	9.2	11.6	23.9	21.1	14.8	19.4
	2013~2014년	3.1	15.6	21.0	22.1	15.3	22.9
연령대	40세 이하	11.1	14.8	33.3	17.3	6.2	17.3
	41~50세	10.7	13.7	25.5	20.3	12.5	17.3
	51~60세	8.3	12.5	20.3	20.8	15.0	23.1
	61세 이상	7.7	14.8	16.4	17.5	18.0	25.7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9.1	13.5	22.2	19.5	14.2	21.4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15.3	13.5	24.9	17.4	11.4	17.4
	도시출신 귀농	7.1	10.8	17.8	20.4	16.4	27.5

1.2. 귀농·귀촌 전 직업

○ 귀농·귀촌 전 직업 조사 결과 ‘자영업자’가 25.8%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18.3%, ‘행정경영관리자’ 11.7%, ‘기능직’ 9.8%, ‘판매서비스직’ 7.6% 순이었음.

그림 2-2. 귀농·귀촌 전 직업



- 최근 들어 행정·경영·관리자나 사무직이 점차 느는 반면, 판매서비스직은 줄고 있음.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의 경우 ‘행정·경영·관리자’, ‘사무직’이 11.0%, 17.6%였던 것이 2013~2014년에는 각각 14.5%, 20.2%로 증가한 반면, ‘판매서비스직’은 동일 기간 10.0%에서 7.6%로 감소 추세.
-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이 많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행정·경영·관리자, 전문직, 자영업이 많았음. ‘행정·경영·관리자’, ‘전문직’, ‘자영업자’는 60대가 15.8%, 10.4%, 25.7%로, 50대 이하에 비해 많은 반면,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은 40대는 22.6%, 11.7%로 50~60대보다 구성비가 높았음.

표 2-2.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전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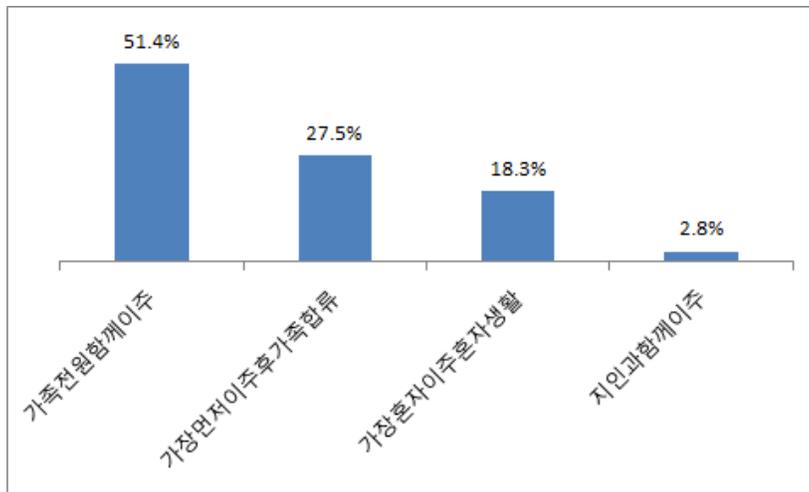
단위: %

		귀농·귀촌 전 직업							
		행정·경영·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능직	자영업자	주부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11.0	8.1	17.6	10.0	10.0	22.4	5.7	15.2
	2009~2010년	11.2	6.4	18.2	7.0	8.6	26.7	7.5	14.4
	2011~2012년	10.1	6.3	17.5	5.9	9.8	32.2	5.6	12.6
	2013~2014년	14.5	1.5	20.2	7.6	10.7	20.2	4.6	20.6
연령대	40세 이하	4.9	2.4	28.0	12.2	12.2	13.4	3.7	23.2
	41~50세	5.5	4.7	22.6	11.7	8.8	23.7	6.6	16.4
	51~60세	15.5	4.2	15.5	5.7	8.5	29.7	6.2	14.7
	61세 이상	15.8	10.4	14.8	3.8	12.6	25.7	3.8	13.1
학력 구분	중졸 이하	0.0	0.0	8.9	1.8	28.6	32.1	5.4	23.2
	고졸	3.1	1.2	10.0	12.4	16.2	34.0	10.0	13.1
	전문대졸	7.7	1.7	15.4	10.3	12.8	32.5	5.1	14.5
	대졸	17.2	5.7	27.0	6.2	3.6	20.8	3.1	16.3
	대학원졸	24.1	25.3	13.8	1.1	3.4	11.5	4.6	16.1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9.9	5.0	16.7	9.9	13.8	26.2	4.3	14.2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10.4	4.8	19.3	6.3	10.4	28.9	4.4	15.6
	도시출신 귀농	13.9	5.5	18.7	7.1	6.6	24.5	7.4	16.3

1.3. 가족 이주

- 귀농·귀촌 시 가족 이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족 전원이 함께 이주’가 51.4%, ‘가장이 먼저 이주 후 나중에 가족 합류’가 27.5%, ‘가장이 혼자 이주했고 지금도 혼자 생활’이 18.3%, ‘지인과 함께 이주’가 2.8%였음.

그림 2-3. 귀농·귀촌 시 가족 이주 여부



- 귀농·귀촌 초기에는 혼자 이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합류하고 있음. 가족 전원 이주 비율은 2013~2014년 귀농·귀촌자는 42.9%이지만, 2011~2012년은 54.2%, 2009~2010년은 55.4%,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의 경우 55.6%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가장 혼자 이주 혼자생활’은 2013~2014년 귀농·귀촌자는 30.5%이지만, 그전 귀농·귀촌자는 10% 수준이었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전원 이주’가 많음. ‘가족 전원 함께 이주’한 귀농·귀촌자가 40세 이하는 58.8%, 41~50세는 59.3%로 50대 이상이 40%대인 것과 비교가 되었음.

- 고학력자일수록 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음. ‘가장 혼자 이주 후 혼자생활’은 대학원졸이 25.3%, 대졸이 20.0%, 고졸이 16.3%, 중졸 이하가 8.9%였음.
-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다른 유형보다 ‘가족 전원 함께 이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가장이 먼저 이주 후 가족 합류’, ‘가장 혼자 이주 혼자 생활’이 많았음.

표 2-3.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시 가족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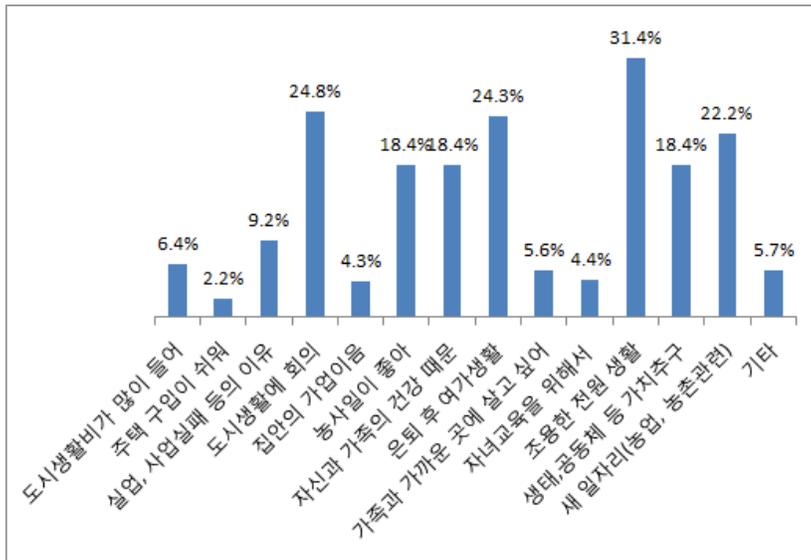
단위: %

		가족 이주			
		가족전원 함께 이주	가장 먼저 이주 후 가족합류	가장혼자 이주 후 혼자생활	지인과 함께 이주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55.6	31.9	10.6	1.9
	2009~2010년	55.4	26.9	15.6	2.2
	2011~2012년	54.2	28.2	14.8	2.8
	2013~2014년	42.9	23.2	30.5	3.5
연령대	40세 이하	58.8	23.8	8.8	8.8
	41~50세	59.3	21.6	16.5	2.6
	51~60세	46.2	30.5	22.1	1.3
	61세 이상	48.1	31.1	16.9	3.8
학력 구분	중졸 이하	55.4	32.1	8.9	3.6
	고졸	52.4	27.8	16.3	3.6
	전문대졸	62.4	19.7	14.5	3.4
	대졸	49.0	29.0	20.0	1.9
	대학원졸	44.8	27.6	25.3	2.3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43.1	35.2	21.0	0.7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55.8	27.1	14.1	3.0
	도시출신 귀농	54.8	21.5	20.2	3.5

1.4. 귀농·귀촌 이유

- 귀농·귀촌 이유로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가 31.4%로 가장 많았고,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가 24.8%,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가 24.3%, ‘새 일자리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위해’가 22.2% 등이 그 다음이었으며, 이 밖에 농사일이 좋아서(18.4%), 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18.4%), 생태, 공동체 등의 가치추구(18.4%) 등도 있었음.

그림 2-4. 귀농·귀촌 이유(복수응답)



-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전원생활을 위해 귀농·귀촌하는 비율이 대체로 늘어남. ‘전원생활’은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23.3%지만, 2013~2014년은 33.2%였음. 반면 ‘공동체 가치’는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31.4%, 2013~2014년은 13.7%로 대체로 줄어듦.
-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은퇴 후 여가, 전원생활을 위해 귀농·귀촌하는 비율이 늘어남. ‘건강’, ‘은퇴 후 여가’, ‘전원생활’은 40세 이하는 15.9%,

6.1%, 25.6%였고, 61세 이상은 19.8%, 45.1%, 43.4%로 늘어났음. 반면 ‘도시생활에 회의’, ‘공동체 가치’는 40세 이하가 33.6%, 30.5%였으나 61세 이상은 10.4%, 9.3%로 줄어듦.

- 고학력일수록 은퇴 후 여가나 전원생활을 위해 귀농·귀촌하는 비율이 늘어남. ‘은퇴 후 여가’, ‘전원생활’이 중졸 이하는 19.6%, 26.8%였고, 대학원졸은 37.6%, 35.3%로 늘어났음. 반면 ‘농사일이 좋아’, ‘건강’은 중졸 이하가 32.1%, 32.1%였으나 대학원졸은 15.3%, 14.1%로 줄어듦.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생태 및 공동체 가치 추구를 위해 귀농·귀촌하는 경우가 많았음. ‘공동체 가치’는 도시출신의 경우 26.5%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7.1%,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18.5%였음.

표 2-4.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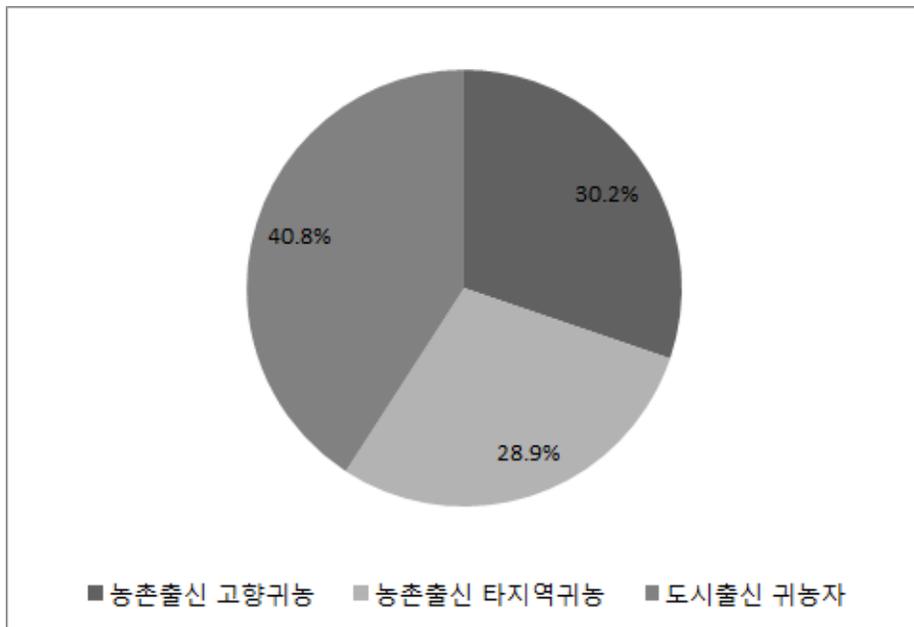
단위: %

		귀농·귀촌 이유							
		도시 생활에 회의	농사일이 좋아	건강	은퇴 후 여가	전원 생활	공동체 가치	새 일자리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34.3	24.8	16.2	12.9	23.3	31.4	13.3	37.6
	2009~2010년	23.4	16.3	18.5	23.9	33.7	19.6	20.1	41.3
	2011~2012년	20.4	18.0	20.1	29.6	34.5	12.7	21.8	38.7
	2013~2014년	23.3	15.6	17.6	27.1	33.2	13.7	31.7	34.7
연령 대	40세 이하	36.6	15.9	15.9	6.1	25.6	30.5	23.2	40.2
	41~50세	34.4	21.6	16.8	8.8	20.5	23.4	23.8	45.4
	51~60세	22.6	18.6	18.3	29.4	34.4	16.8	23.9	33.2
	61세 이상	10.4	15.4	19.8	45.1	43.4	9.3	14.8	37.4
학력 구분	중졸 이하	21.4	32.1	32.1	19.6	26.8	14.3	17.9	33.9
	고졸	21.8	17.9	23.0	22.2	31.5	9.3	24.1	46.3
	전문대졸	25.0	15.5	20.7	19.8	31.0	12.9	23.3	45.7
	대졸	28.1	18.7	13.2	24.9	30.9	25.7	20.6	34.1
	대학원졸	22.4	15.3	14.1	37.6	35.3	21.2	22.4	28.2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17.4	21.0	16.4	26.0	25.3	7.1	24.2	56.2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24.1	20.4	19.6	27.4	38.5	18.5	20.0	29.3
	도시출신 귀농	30.2	15.2	19.4	21.0	30.7	26.5	22.8	31.2

1.5. 귀농·귀촌 유형

- 귀농·귀촌 유형을 조사한 결과 ‘농촌출신 고향귀농’이 30.2%,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이 28.9%, ‘도시출신 귀농’이 40.8%였음.

그림 2-5. 귀농·귀촌 유형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도시출신 귀농자가 늘어남. 농촌출신 귀농·귀촌자는 2009~2010년 61.6%에서 2013~2014년 54.8%로 다소 줄어든 반면, 도시출신 귀농자는 동일기간 38.5%에서 45.2%로 많아짐.
- 연령대가 낮을수록 도시출신 귀농자가 많았음. ‘도시출신 귀농자’는 40세 이하가 51.9%, 41~50세가 43.4%, 51~60세가 40.6%, 61세 이상이 33.9%였음. 반면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은 40세 이하가 12.7%, 41~50세가 26.1%, 51~60세가 33.2%, 61세 이상이 31.1%였음.

- 고학력일수록 도시출신 귀농자가 많았음. ‘도시출신 귀농자’는 대학원졸과 대졸이 각각 47.6%, 전문대졸 37.9%, 고졸 32.6%, 중졸 이하 27.3%였음. 반면 ‘농촌출신 고향귀농’은 대학원졸이 19.5%, 대졸 26.6%, 전문대졸 31.9%, 고졸과 중졸 이하는 각각 36.4%였음.

표 2-5.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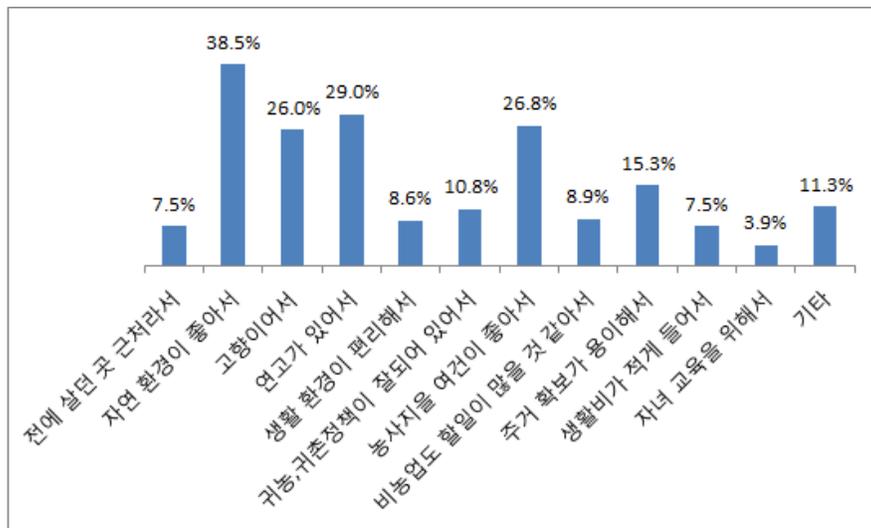
단위: %

		귀농·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귀촌	농촌출신 타지역귀농·귀촌	도시출신 귀농·귀촌자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28.3	30.7	41.0
	2009~2010년	30.8	30.8	38.5
	2011~2012년	34.6	27.6	37.8
	2013~2014년	27.0	27.8	45.2
연령 대	40세 이하	35.4	12.7	51.9
	41~50세	30.5	26.1	43.4
	51~60세	26.1	33.2	40.6
	61세 이상	35.0	31.1	33.9
학력 구분	중졸 이하	36.4	36.4	27.3
	고졸	36.4	31.0	32.6
	전문대졸	31.9	30.2	37.9
	대졸	26.6	25.9	47.6
	대학원졸	19.5	32.9	47.6

1.6. 귀농·귀촌지 선택

- 현 거주지를 귀농·귀촌지로 선택한 동기를 조사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자연 환경이 좋아서’가 38.5%로 가장 많고, ‘연고가 있어서’가 29.0%, ‘농사지을 여건이 좋아서’가 26.8%, ‘고향이어서’가 26.0%였음. 이 밖에 주거 확보가 용이해서(15.3%), 귀농·귀촌 정책이 잘되어 있어서(10.8%) 등이 있음.

그림 2-6. 귀농·귀촌지 선택 이유(복수응답)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귀농·귀촌정책이 잘되어 있는 곳에 귀농·귀촌하는 비율이 늘어남. ‘귀농·귀촌정책’이 2008년 이전에는 5.7%지만, 2009~2010년 11.4%, 2011~2012년 12.6%, 2013년 이후는 12.8%로 점차 높아졌음. 반면 ‘주거확보용이’는 2008년 이전에는 20.0%지만, 2009~2010년 16.8%, 2011~2012년 13.3%, 2013년 이후는 12.8%였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업 이외에 할 일을,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귀농·귀촌지를 선택하고 있었음. 40대 이하에서는 ‘농사지을 여

건이 좋아서' 현 귀농·귀촌지를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음. '농사를 안 지어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에 대해 50세 이하는 6%대인 반면, 50대 이상은 11%대였음.

- 고학력자일수록 자연환경을 중요시했음. '자연환경'은 대학원졸이 43.5%, 대졸이 40.0%, 전문대졸이 37.1%, 고졸이 36.8%, 중졸 이하가 32.7%였음.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자연환경과 주거확보 용이성을 중요시했음. '자연환경이 좋아서'와 '주거확보용이'는 도시출신은 47.4%, 18.3%였으나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12.8%, 11.0%였음.

표 2-6.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장소 선택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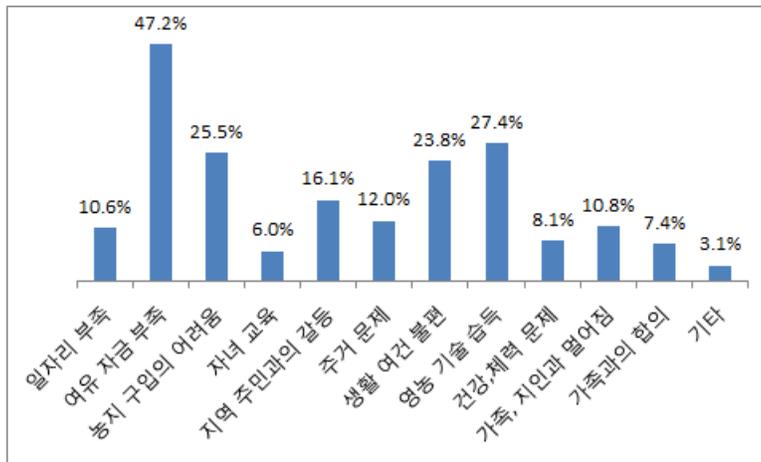
단위: %

		귀농·귀촌지 선택 이유							
		자연 환경	고향 이어서	연고가 있어	귀농·귀촌 정책	농사 여건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주거 확보 용이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38.1	22.9	25.7	5.7	26.7	6.7	20.0	43.3
	2009~2010년	36.4	28.8	27.2	11.4	26.6	9.8	16.8	38.6
	2011~2012년	39.3	27.7	31.2	12.6	24.6	6.3	13.3	40.0
	2013~2014년	39.5	24.8	30.2	12.8	29.1	13.2	12.8	34.5
연령대	40세 이하	34.2	35.4	30.4	7.6	32.9	6.3	13.9	32.9
	41~50세	34.7	27.7	33.2	12.8	23.4	6.6	17.2	37.2
	51~60세	42.3	21.7	28.2	9.1	29.7	10.1	14.9	39.3
	61세 이상	38.5	28.6	22.0	13.2	24.2	11.0	14.3	42.9
학력 구분	중졸 이하	32.7	20.0	38.2	18.2	20.0	7.3	18.2	41.8
	고졸	36.8	29.5	34.9	8.9	26.7	10.9	15.5	33.7
	전문대졸	37.1	31.9	33.6	13.8	25.0	6.0	12.9	32.8
	대졸	40.0	24.6	24.3	8.9	29.9	8.4	16.1	41.0
	대학원졸	43.5	18.8	17.6	17.6	21.2	10.6	12.9	50.6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12.8	77.0	39.4	7.1	24.5	3.2	11.0	22.7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54.1	1.5	20.7	12.6	27.4	12.2	15.2	52.2
	도시출신 귀농	47.4	5.8	27.0	12.2	28.0	11.1	18.3	41.0

1.7. 귀농·귀촌 장애

-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여유 자금 부족’이 47.2%로 가장 많았고, ‘영농기술 습득’이 27.4%, ‘농지 구입의 어려움’이 25.5%, ‘생활 여건(의료·복지·문화·쇼핑) 불편’이 23.8%였음. 이 밖에 ‘지역주민과의 갈등’(16.1%), ‘주거문제’(12.0%), ‘가족·지인과 멀어짐’(10.8%), ‘일자리 부족’(10.6%) 등도 있었음.

그림 2-7. 귀농·귀촌 장애요인(복수응답)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농지 구입과 영농기술 습득이 어려움. ‘농지 구입’은 2008년 20.1%지만, 2009~2010년 26.4%, 2011~2012년 26.2%, 2013년 이후가 28.8%로 점차 높아졌음. ‘영농기술 습득’은 같은 기간 21.5%, 27.5%, 25.1%, 34.6%로 높아졌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주민갈등과 영농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음. ‘지역주민갈등’과 ‘영농기술 습득’은 40세 이하에서는 7.8%, 20.8%였고, 61세 이상에서는 20.0%, 33.9%였음. 반면 ‘농지 구입’과 ‘주거’는 45세 이하에서는 41.6%, 26.0%였고, 61세 이상에서는 17.8%, 8.3%였음.

- 저학력일수록 영농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음. ‘영농기술 습득’은 중졸 이하 33.3%, 고졸 31.4%, 전문대졸 27.2%, 대졸 24.2%, 대학원졸 25.3%였음.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지역주민갈등과 주거 문제와 관련한 장애를 많이 겪고, 농촌출신은 여유자금 문제에 대한 장애를 겪고 있음. ‘지역주민 갈등’이 도시출신의 경우 19.8%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8.6%인 반면 ‘여유자금’ 관련 장애는 도시출신 41.7%,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49.3%,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52.7%가 겪고 있었음.

표 2-7.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장애요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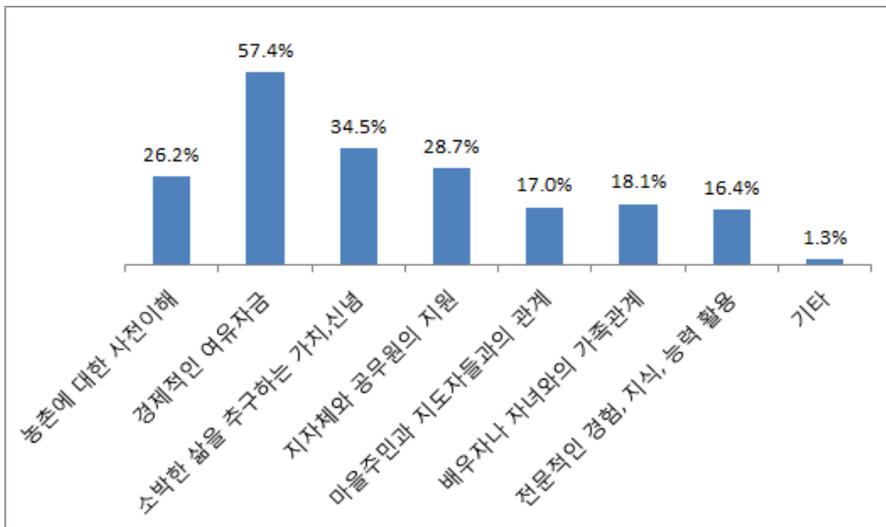
단위: %

		귀농·귀촌 장애요인						
		여유자금	농지구입	지역주민갈등	주거	생활여건불편	영농기술습득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45.0	20.1	17.2	16.7	21.1	21.5	54.1
	2009~2010년	43.4	26.4	24.2	11.0	20.9	27.5	45.1
	2011~2012년	54.5	26.2	15.1	8.6	28.3	25.1	41.2
	2013~2014년	44.0	28.8	10.1	12.8	23.3	34.6	45.1
연령 대	40세 이하	50.6	41.6	7.8	26.0	22.1	20.8	28.6
	41~50세	56.7	29.3	9.3	15.2	18.5	22.2	46.7
	51~60세	44.8	23.8	20.8	9.1	25.6	28.9	45.6
	61세 이상	35.6	17.8	20.0	8.3	28.9	33.9	53.3
학력 구분	중졸 이하	53.7	37.0	13.0	7.4	18.5	33.3	37.0
	고졸	52.2	21.2	16.5	6.3	25.9	31.4	45.1
	전문대졸	53.5	28.1	15.8	8.8	23.7	27.2	40.4
	대졸	44.0	26.6	14.3	16.2	23.2	24.2	49.8
	대학원졸	33.7	25.3	27.7	18.1	22.9	25.3	44.6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52.7	23.3	8.6	8.2	24.0	32.6	49.5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49.3	29.5	19.0	12.3	24.3	23.1	41.8
	도시출신 귀농	41.7	24.6	19.8	14.7	23.0	25.9	47.1

1.8. 귀농·귀촌 정착과정 중요요인

- 귀농·귀촌 정착과정의 중요요인 조사 결과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이 57.4%로 가장 많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이 34.5%, ‘정부·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이 28.7%,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이 26.2%였음.

그림 2-8. 귀농·귀촌 정착과정의 중요요인(복수응답)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음. ‘정부정책이나 귀농·귀촌 지역의 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16.2%지만,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40.4%로 점차 높았음. 반면 ‘농촌에 대한 사전이해와 교육’과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은 2008년 이전 35.7%, 49.5%였지만, 2013년 이후에는 21.9%, 27.7%로 점차 낮아졌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경험 활용을 중요시했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중요하게 여겼음. ‘전문적인 경험, 지

식, 능력 활용'은 40세 이하에서는 9.9%였지만, 61세 이상에서는 18.9%였음. 반면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은 40세 이하 40.7%, 61세 이상 29.4%였음.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소박한 삶과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음.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과 '마을 주민,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도시출신 귀농자가 37.1%, 18.7%였고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28.0%, 15.4%였음. 반면 '경제적 여유 및 안정적 소득', '가족관계', '전문적인 경험, 지식, 능력 활용'은 도시출신 귀농자가 53.9%, 18.9%, 15.5%였고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64.5%, 20.1%, 17.6% 였음.

표 2-8.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정착과정 중요요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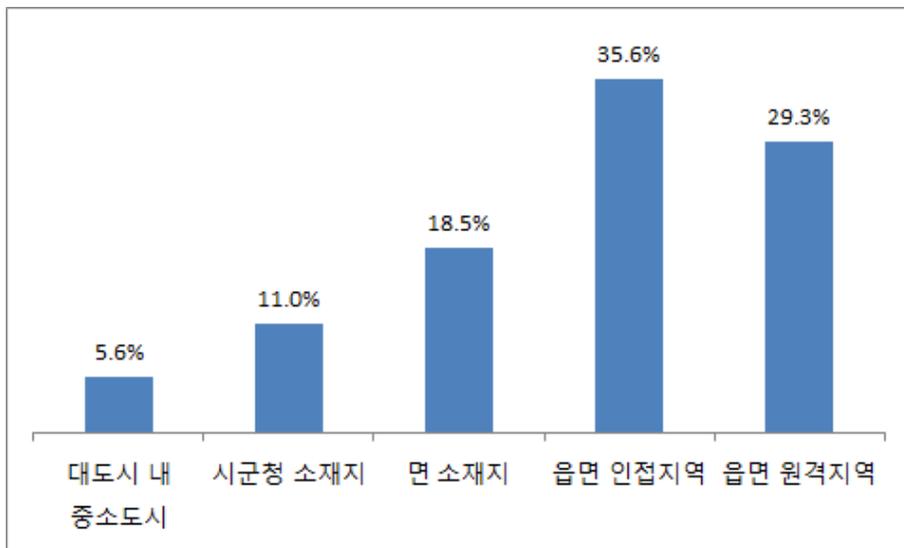
단위: %

		정착과정 중요요인							
		농촌 사전 이해/ 교육	경제적 여유/ 안정적 소득	소박한 삶추구 가치/ 신념	정책, 지자체 공무원 지원	마을 주민, 지도자와 관계	가족 관계	전문 경험, 지식 활용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35.7	48.1	49.5	16.2	14.3	22.4	12.4	1.4
	2009~2010년	25.0	59.2	32.1	26.6	19.6	17.4	15.8	3.3
	2011~2012년	24.0	64.3	31.4	29.0	15.9	16.3	19.1	0.0
	2013~2014년	21.9	55.8	27.7	40.4	18.5	16.9	17.3	1.2
연령 대	40세 이하	23.5	56.8	40.7	25.9	14.8	23.5	9.9	2.5
	41~50세	23.0	63.1	39.4	24.1	12.0	22.6	14.6	1.1
	51~60세	28.5	57.4	33.0	28.7	18.6	14.9	17.9	0.8
	61세 이상	27.8	47.8	29.4	36.1	21.1	16.1	18.9	2.2
학력 구분	중졸 이하	27.3	47.3	41.8	36.4	21.8	7.3	16.4	1.8
	고졸	27.2	65.4	27.2	34.6	18.3	10.5	16.3	0.0
	전문대졸	32.8	62.9	27.6	23.3	14.7	21.6	16.4	0.9
	대졸	24.0	54.0	39.8	24.5	15.3	23.7	16.8	1.7
	대학원졸	24.7	48.2	38.8	31.8	20.0	16.5	15.3	3.5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23.3	64.5	28.0	30.1	15.4	20.1	17.6	1.1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28.1	54.8	36.7	30.7	16.3	15.6	16.3	1.1
	도시출신 귀농	27.1	53.9	37.1	26.3	18.7	18.9	15.5	1.6

1.9. 거주지 유형

- 귀농·귀촌인의 실제 거주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읍면사무소 소재지 인접지역’이 35.6%로 가장 많았고, ‘원격지역’은 29.3%, ‘면사무소 소재지’는 18.5%, ‘시군청 소재지’는 11.0%, ‘대도시 내 중소도시’는 5.6%였음.

그림 2-9. 실 거주지역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중소도시와 읍면 인접지역에 귀농·귀촌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남. ‘대도시 내 중소도시’와 ‘읍면 인접지역’은 2008년 이전 2.4%, 31.4%지만, 2013년 이후 12.0%, 38.0%로 높아졌음. 반면 읍면 원격지역은 2008년 이전 38.6%지만, 2013년 이후 24.8%로 낮아졌음.
- 도시출신 귀농자들은 대체로 중소도시와 읍면 인접지역을 선호함. ‘대도시 내 중소도시’와 ‘읍면 인접지역’은 도시출신의 경우 6.8%, 37.6%인 데 비해, 농촌출신의 고향 귀농·귀촌자는 4.7%, 33.7%,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5.2%, 35.1%였음. 반면 ‘시군청 소재지’와 ‘면 소재지’는 도시출신이 8.7%,

16.6%였고, 농촌출신 고향귀농자가 15.6%, 20.3%였음.

표 2-9.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거주지 유형

단위: %

		거주지 유형				
		대도시 내 중소도시	시군청 소재지	면 소재지	읍면 인접지역	읍면 원격지역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2.4	11.4	16.2	31.4	38.6
	2009~2010년	1.6	10.8	22.6	32.3	32.8
	2011~2012년	4.3	11.7	20.6	39.1	24.2
	2013~2014년	12.0	9.7	15.5	38.0	24.8
연령 대	40세 이하	6.1	18.3	9.8	36.6	29.3
	41~50세	4.8	15.0	15.0	37.0	28.2
	51~60세	7.2	6.7	20.7	35.4	29.9
	61세 이상	3.3	10.9	23.0	33.3	29.5
학력 구분	중졸 이하	0.0	7.1	35.7	28.6	28.6
	고졸	5.4	11.2	22.1	29.1	32.2
	전문대졸	2.6	15.4	19.7	36.8	25.6
	대졸	6.5	9.4	13.9	40.5	29.7
	대학원졸	9.2	14.9	16.1	34.5	25.3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4.7	15.6	20.3	33.7	25.7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5.2	9.3	18.7	35.1	31.7
	도시출신 귀농	6.8	8.7	16.6	37.6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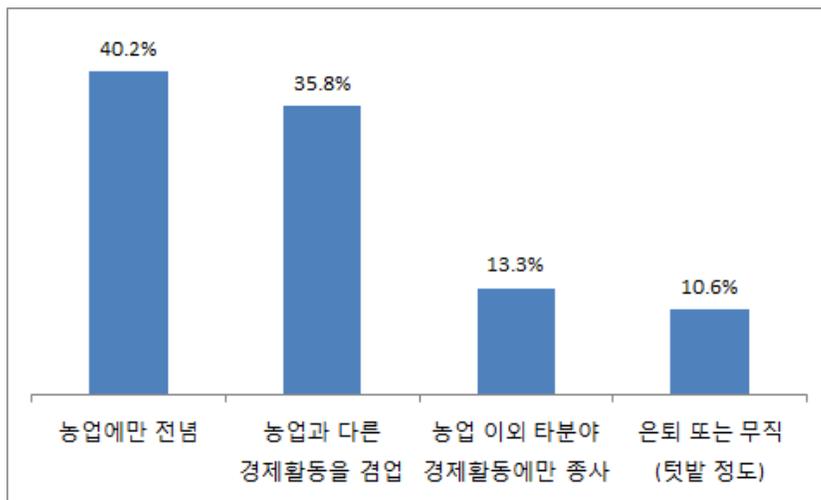
2. 경제활동 실태

- 경제활동분야, 주력품목, 판매액, 영농규모 등 귀농·귀촌 후 경제 상황에 대해 조사하였고, 향후 희망 경제활동분야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 앞으로의 소득 전망 등을 파악하였음.

2.1. 경제활동분야

- 귀농·귀촌 후 종사하는 주요 경제활동을 조사한 결과 ‘농업에만 전념’이 40.2%, ‘농업과 다른 경제활동을 겸업’이 35.8%, ‘농업 이외 타 분야 경제활동에만 종사’가 13.3%, ‘은퇴 또는 무직(텃밭 정도의 취미 농업 포함)’이 10.6%였음.

그림 2-10. 귀농·귀촌 후 주요 경제활동



- 귀농·귀촌이 오래될수록 농업종사비율이 높아짐. ‘농업에만 전념’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44.5%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41.3%,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37.8%, 2013년 이후 38.5%로 낮아졌음.

- 연령대가 낮고, 학력이 높고, 도시출신일수록 농업에만 종사하는 비율은 낮고,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음. 연령별로 보면 ‘농업 이외 타 분야 경제활동에만 종사’는 40세 이하가 19.8%, 41~50세 16.8%, 51세~60세 12.1%, 61세 이상이 6.9%였음. 학력별로는 타 경제활동에만 종사하는 비율은 대학원졸 14.3%, 중졸 이하 3.8%였고, 반면 농업에만 전념하는 비율은 대학원졸 38.1%, 중졸 이하 48.1%였음. 도시출신자는 농업 외 타 분야 경제활동에만 종사하는 비율이 18.4%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귀촌자는 7.2%, 농촌출신 타지역귀농·귀촌자는 12.3%였음.

표 2-10.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주요 경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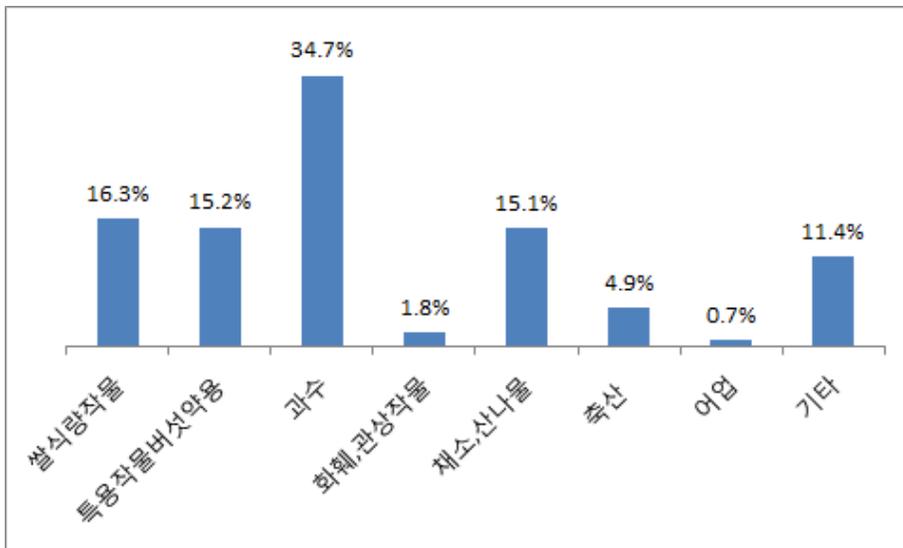
단위: %

		주요 경제활동			
		농업에만 전념	농업과다른 경제활동 겸업	농업외 타분야에만 종사	은퇴 또는 무직 (덧받정도)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44.5	35.4	15.3	4.8
	2009~2010년	41.3	35.3	10.9	12.5
	2011~2012년	37.8	39.6	12.6	10.1
	2013~2014년	38.5	32.7	14.0	14.8
연령대	40세 이하	35.8	33.3	19.8	11.1
	41~50세	37.7	43.6	16.8	1.8
	51~60세	43.2	33.1	12.1	11.6
	61세 이상	39.7	31.0	6.9	22.4
학력 구분	중졸 이하	48.1	34.6	3.8	13.5
	고졸	43.7	32.5	10.7	13.1
	전문대졸	42.7	35.9	15.4	6.0
	대졸	37.2	38.8	15.1	8.9
	대학원졸	38.1	31.0	14.3	16.7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48.9	39.1	7.2	4.7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35.1	39.2	12.3	13.4
	도시출신 귀농	37.3	31.2	18.4	13.1

2.2. 주력품목(영농종사 시)

- 영농종사자에 한하여 판매액이 가장 많은 품목(주력품목)을 조사한 결과 ‘과수’가 34.7%로 가장 많았고, ‘쌀·식량작물’이 16.3%, ‘특용작물·버섯·약용작물’이 15.2%, ‘채소·산나물’이 15.1%, 축산은 4.9%였음.

그림 2-11. 판매액이 가장 많은 주력품목



-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축산 비율이 점차 적었음 ‘축산’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9.0%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3.6%,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4.0%,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3.1%로 점차 낮아졌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과수 품목이 많았음. ‘과수’가 40세 이하는 21.8%, 41~50세가 31.5%, 51~60세가 38.1%, 61세 이상이 37.7%였음. 반면 ‘쌀·식량작물’이 40세 이하는 29.1%, 41~50세가 16.4%, 51~60세가 14.4%, 61세 이상이 15.2%였음.

- 대체로 농촌출신 고향귀농자일수록 쌀·식량작물에 종사함. ‘쌀·식량작물’ 종사자는 농촌출신 고향귀농자의 경우 21.9%인 데 비해, 도시출신은 14.0%,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12.4%였음.

표 2-11.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주력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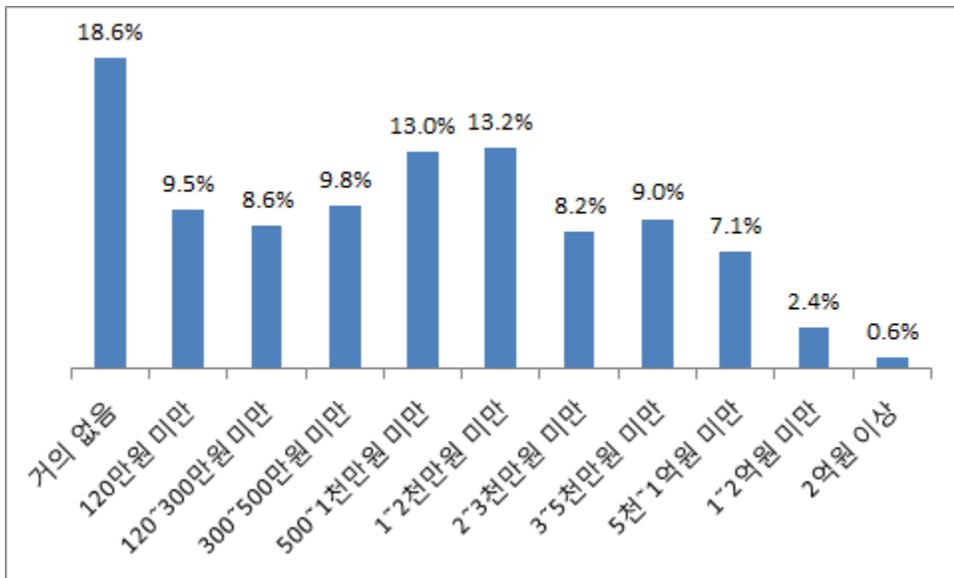
단위: %

		주력품목							
		쌀 식량 작물	특용 작물 버섯 약용	과수	화훼, 관상 작물	채소, 산나물	축산	어업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17.4	13.8	30.5	1.2	17.4	9.0	0.6	10.2
	2009~2010년	18.6	15.0	39.3	0.7	13.6	3.6	0.7	8.6
	2011~2012년	18.5	12.8	39.6	2.2	11.9	4.0	0.4	10.6
	2013~2014년	10.9	19.7	29.5	2.6	18.1	3.1	1.0	15.0
연령 대	40세 이하	29.1	12.7	21.8	1.8	16.4	7.3	0.0	10.9
	41~50세	16.4	19.2	31.5	1.8	16.9	4.6	0.0	9.6
	51~60세	14.4	13.8	38.1	1.6	13.8	6.1	1.0	11.2
	61세 이상	15.2	12.3	37.7	2.2	15.2	2.2	1.4	13.8
학력 구분	중졸 이하	10.4	10.4	39.6	0.0	20.8	2.1	4.2	12.5
	고졸	20.1	12.4	35.1	1.5	13.9	3.6	1.0	12.4
	전문대졸	12.8	17.0	34.0	1.1	13.8	5.3	1.1	14.9
	대졸	17.5	16.9	32.2	1.8	14.4	7.1	0.0	10.1
	대학원졸	6.7	15.0	45.0	5.0	21.7	0.0	0.0	6.7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21.9	13.5	36.7	2.8	10.4	5.2	1.2	8.4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12.4	14.3	32.9	1.4	20.5	5.2	0.5	12.9
	도시출신 귀농	14.0	17.4	34.1	1.2	15.9	4.3	0.4	12.8

2.3. 농산물 판매액 규모

- 연간 농산물 판매액 규모를 조사한 결과 ‘거의 없음’이 18.6%, 500만 원 미만이 27.9%, 5백만~2천만 원 미만이 26.2%, 2천만~5천만 원이 17.2%, 5천만 원 이상이 10.1%였음.

그림 2-12. 귀농·귀촌 후 농산물 판매액 규모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판매액이 많았음. ‘5천만 원 이상’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17.2%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11.3%,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8.0%,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5.7%로 점차 낮아졌음. 반면 ‘거의 없음’은 같은 기간 8.0%, 15.2%, 15.1%, 33.5%였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인 판매액이 많았음. ‘거의 없음’과 ‘120만 원 미만’이 40세 이하는 13.6%, 3.4%, 41~50세가 17.1%, 7.5%, 51~60세가 18.9%, 9.6%, 61세 이상이 20.5%, 15.2%였음.

- 농촌출신자가 도시출신자보다 판매액이 많았음. ‘120만 원 미만’이 도시출신의 경우 11.1%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9.3%, 농촌출신 타지역 귀농자는 7.7%였음. 반면 ‘5천만 원 이상’은 도시출신이 8.3%로, 농촌출신 고향귀농자 13.6%보다 적었음.

표 2-12.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농산물 판매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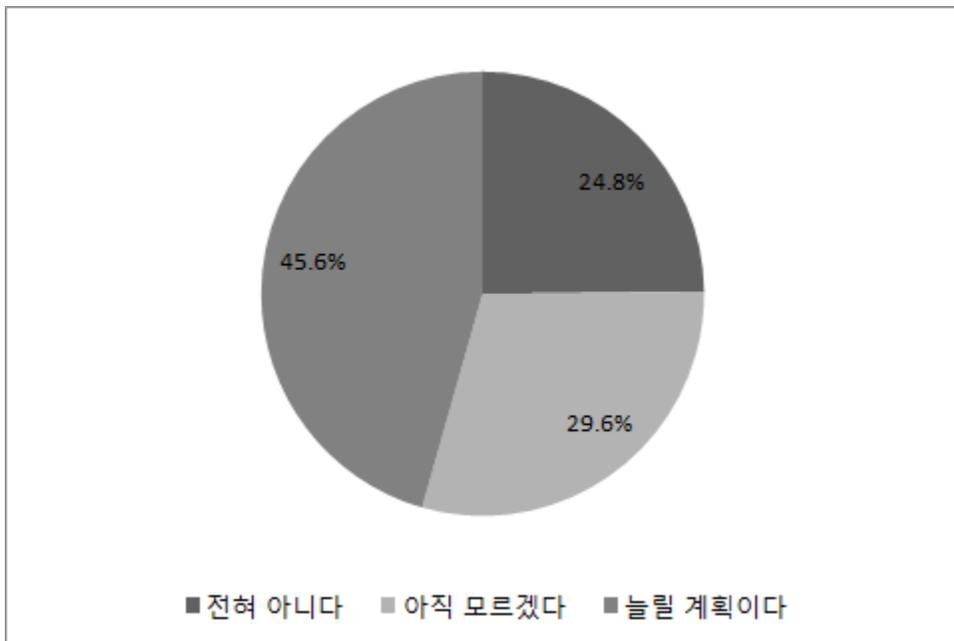
단위: %

		농산물 판매액 규모								
		거의 없음	120만 원 미만	120만~ 300만 원	300만~ 500만 원	500만~ 1천만 원	1천만~ 2천만 원	2천만~ 3천만 원	3천만~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8.0	6.9	6.9	12.1	16.7	9.8	10.9	11.5	17.2
	2009~2010년	15.2	6.6	6.6	5.3	15.2	17.9	9.9	11.9	11.3
	2011~2012년	15.1	11.3	9.2	10.9	13.4	17.6	7.6	6.7	8.0
	2013~2014년	33.5	11.8	10.8	9.4	8.0	8.0	5.7	7.1	5.7
연령 대	40세 이하	13.6	3.4	3.4	15.3	13.6	10.2	16.9	8.5	15.3
	41~50세	17.1	7.5	5.3	8.8	9.2	14.9	11.0	12.3	14.0
	51~60세	18.9	9.6	11.4	9.9	12.9	12.3	6.9	8.7	9.6
	61세 이상	20.5	15.2	9.9	9.3	17.2	14.6	4.0	5.3	4.0
학력 구분	중졸 이하	18.4	16.3	8.2	10.2	18.4	14.3	8.2	6.1	0.0
	고졸	16.9	9.9	10.3	9.9	15.5	11.7	8.0	7.5	10.3
	전문대졸	21.6	10.8	2.9	4.9	9.8	15.7	11.8	9.8	12.7
	대졸	15.2	7.6	9.6	12.6	11.1	13.2	7.9	11.4	11.4
	대학원졸	31.3	12.5	7.8	3.1	12.5	15.6	6.3	3.1	7.8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10.5	9.3	7.0	9.7	15.6	14.0	10.5	9.7	13.6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24.9	7.7	8.1	9.0	12.7	16.3	6.3	7.2	7.7
	도시출신 귀농	21.5	11.1	10.7	10.0	10.7	10.0	8.0	9.7	8.3

2.4. 영농규모 확대계획

- 향후 영농규모 확대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혀 아니다’가 24.8%, ‘아직 모르겠다’가 29.6%, ‘늘릴 계획이다’가 45.6%였음.

그림 2-13. 향후 영농규모 확대 계획



-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었음. ‘늘릴 계획이다’가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36.6%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43.7%,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47.9%,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51.6%로 점차 높아졌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영농규모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음. ‘늘릴 계획이다’가 40세 이하는 65.6%, 41~50세가 56.4%, 51~60세가 44.4%, 61세 이상이 22.7%였음.

- 농촌 출신일수록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이었음. ‘늘릴 계획이다’가 도시출신의 경우 41.7%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51.2%,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44.6%였음.

표 2-13.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계획

단위: %

		영농규모 확대계획		
		전혀 아니다	아직 모르겠다	늘릴 계획이다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38.3	25.1	36.6
	2009~2010년	29.1	27.2	43.7
	2011~2012년	22.2	29.9	47.9
	2013~2014년	14.3	34.1	51.6
연령대	40세 이하	8.2	26.2	65.6
	41~50세	18.1	25.6	56.4
	51~60세	24.9	30.6	44.4
	61세 이상	42.2	35.1	22.7
학력 구분	중졸 이하	20.8	35.4	43.8
	고졸	24.7	32.1	43.3
	전문대졸	17.0	27.0	56.0
	대졸	28.0	29.2	42.8
	대학원졸	26.2	24.6	49.2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21.5	27.3	51.2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27.2	28.1	44.6
	도시출신 귀농	25.0	33.3	41.7

2.5. 농외 경제활동 여부

- 생산 농업 이외 분야별 소득(경제)활동 정도를 조사한 결과 ‘농산물 판매’ 활동을 60.7%(특정시기 종사 41.0%, 일상적으로 19.7%)가 하고 있었고, 이 밖에 ‘농산물 가공’ 40.8%, ‘농촌관광사업’ 10.8%, ‘자영업’ 13.7%, ‘농외 직장’ 21.5%, ‘농외 시간제 노동’에 33.2%, ‘농업 노동’에 35.0%가 종사하고 있었음.

표 2-14. 생산 농업 이외의 소득 활동

단위: %

	하지 않음	특정시기에만 함	일상적으로 함
농산물 가공	59.2	33.5	7.3
농산물 판매	39.3	41.0	19.7
농촌관광사업	89.2	5.2	5.6
자영업	86.3	4.9	8.8
농외 직장	78.5	8.1	13.4
농외 시간제	66.8	25.2	8.0
농업 노동	64.9	30.7	4.3

- 귀농·귀촌 연수가 오래될수록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 활동 비율이 점차 늘었음.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가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56.7%, 70.4%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44.7%, 64.6%,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38.7%, 60.1%,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27.8%, 51.6%로 점차 낮아졌음. 반면 ‘시간제 근무’는 같은 기간 29.3%, 30.6%, 35.5%, 36.1%로 높아졌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간제 근무와 농업 노동 참여 비율이 높았음. ‘시간제 근무’와 ‘농업노동’이 40세 이하는 40.0%, 42.3%, 41~50세가 39.9%, 43.9%, 51~60세가 31.8%, 32.2%, 61세 이상이 20.4%, 22.3%였음.

- 농촌출신자가 도시출신자보다 농산물 가공과 판매 그리고 시간제 노동(아르바이트), 농업 노동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 활동 참여자가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45.4%, 65.5%,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38.6%, 61.2%인 데 비해 도시출신의 경우 39.3%, 56.5%였음. ‘시간제 농외노동’과 ‘농업노동’은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의 경우 38.2%, 39.7%인 데 비해, 도시출신 귀농·귀촌자는 30.3%, 31.4%였음.

표 2-15.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농외 경제활동 참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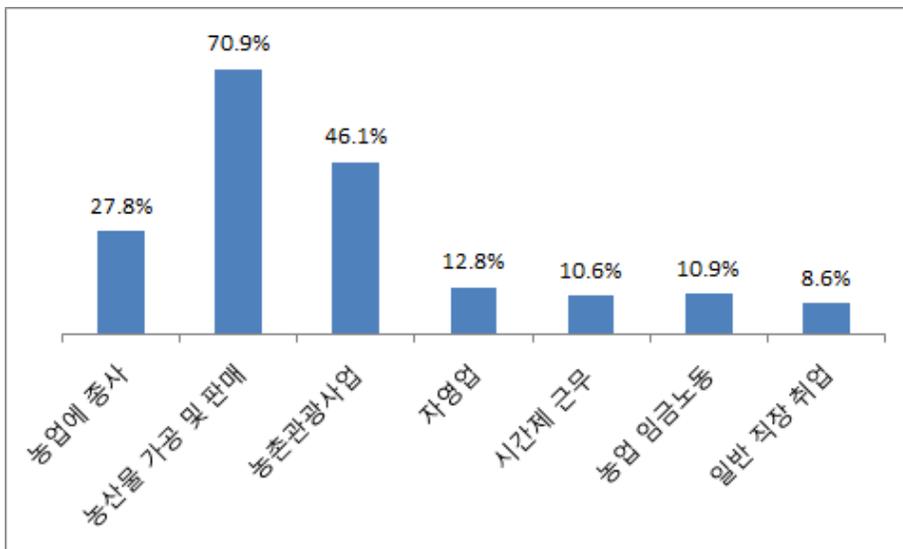
단위: %

		농외 경제활동 참여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	농촌 관광	자영업	농외 직장	시간제	농업 노동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56.7	70.4	20.6	15.1	27.3	29.3	35.1
	2009~2010년	44.7	64.6	7.2	16.9	21.0	30.6	32.9
	2011~2012년	38.7	60.1	9.0	10.5	21.4	35.5	30.8
	2013~2014년	27.8	51.6	7.4	13.5	17.6	36.1	41.5
연령 대	40세 이하	38.6	58.1	5.8	15.9	20.8	40.0	42.3
	41~50세	44.4	64.3	12.7	18.8	26.3	39.9	43.9
	51~60세	39.5	63.7	11.0	11.8	20.4	31.8	32.2
	61세 이상	38.8	49.3	9.9	7.1	15.4	20.4	22.3
학력 구분	중졸 이하	35.0	46.3	6.1	8.8	8.6	45.9	36.8
	고졸	40.1	59.4	7.1	15.6	18.3	31.6	43.7
	전문대졸	47.8	61.5	12.2	16.0	24.4	36.0	50.0
	대졸	43.7	66.5	13.4	12.5	23.4	31.3	28.3
	대학원졸	23.2	44.0	9.1	10.1	21.7	32.9	20.3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45.4	65.5	10.8	14.9	17.7	32.2	36.1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38.6	61.2	8.9	12.5	25.6	38.2	39.7
	도시출신 귀농	39.3	56.5	11.6	13.1	21.3	30.3	31.4

2.6. 희망하는 경제활동 분야

- 앞으로 하고 싶은 경제활동을 조사한 결과 ‘농산물(가공식품) 가공 및 판매 (직거래·온라인 판매 등)’이 70.9%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농촌관광사업 (주말농장, 민박 등)’이 46.1%, ‘농업에 종사’가 27.8% 등으로 나타났음.

그림 2-14. 향후 희망 경제활동 분야(복수응답)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농산물 가공 판매와 농외 분야에 대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함.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시간제 근무’가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56.7%, 9.0%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75.1%, 7.0%,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72.1%, 10.7%,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77.5%, 14.1%로 점차 높아졌음.
- 저학력자일수록 농업에만 전념하는 것을, 고학력자일수록 가공 및 판매 활동 참여 희망자가 많았음. ‘농업에만 종사’는 중졸 이하 34.5%였고, 대학원

이상은 21.2%인 반면 ‘농산물 가공 및 판매’는 중졸 이하 69.1%였고, 대학원이상은 77.6%였음. 한편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영업 활동을 많이 희망함.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농외 시간제 근무를 희망함. ‘시간제 근무’가 도시출신의 경우 13.2%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7.6%,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10.9%였음.

표 2-16.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희망 경제활동(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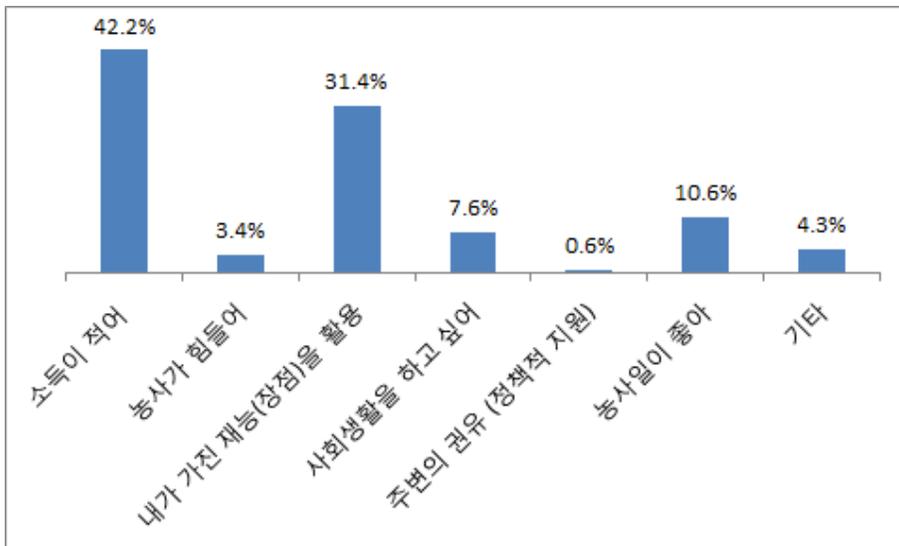
단위: %

		희망 경제활동					
		농업에 종사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농촌 관광 사업	자영업	시간제 근무	농업 임금 노동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24.9	56.7	43.3	12.4	9.0	8.5
	2009~2010년	21.6	75.1	58.9	9.7	7.0	9.2
	2011~2012년	26.8	72.1	46.8	13.9	10.7	13.2
	2013~2014년	35.1	77.5	38.5	14.1	14.1	11.8
연령대	40세 이하	32.1	74.1	46.9	17.3	4.9	8.6
	41~50세	23.8	69.1	44.2	16.4	11.2	11.5
	51~60세	29.5	75.6	48.6	10.9	9.7	8.9
	61세 이상	28.9	62.2	42.8	9.4	14.4	15.0
학력 구분	중졸 이하	34.5	69.1	43.6	9.1	9.1	16.4
	고졸	33.3	67.8	38.0	17.1	11.6	13.6
	전문대졸	27.8	74.8	52.2	10.4	14.8	8.7
	대졸	25.3	70.8	48.2	10.8	9.6	10.1
	대학원졸	21.2	77.6	55.3	14.1	7.1	4.7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24.1	76.6	51.1	16.5	7.6	9.4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33.1	66.9	42.5	11.3	10.9	13.2
	도시출신 귀농	26.6	70.2	45.4	11.3	13.2	10.2

2.7. 경제활동 동기

- 경제활동을 하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소득이 적어서’가 42.2%로 가장 많았고, ‘내가 가진 재능(장점)을 활용하고 싶어서’가 31.4%, ‘농사일이 좋아서’가 10.6%,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7.6%였음.

그림 2-15. 희망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



-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동기가 ‘농사일이 좋아서’가 많았음. 40세 이하는 16.9%, 41~50세가 11.6%, 51~60세가 9.9%, 61세 이상이 8.2%였음.
- 고학력자일수록 ‘재능활용’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많았음. 고졸 이하는 각각 50.0%, 8.7%, 대졸 이상은 69.2%, 22.7%였음.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와 ‘농사일이 좋아서’가 많았음. 도시출신의 경우 8.8%, 12.5%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5.6%, 7.1%,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8.1%, 11.4%였음. 반면 ‘재능을

활용하고 싶어서'가 동기인 도시출신은 30.5%로, 농촌출신 고향귀농자(33.5%), 농촌출신의 타지역귀농자(30.9%)보다 적었음.

표 2-17.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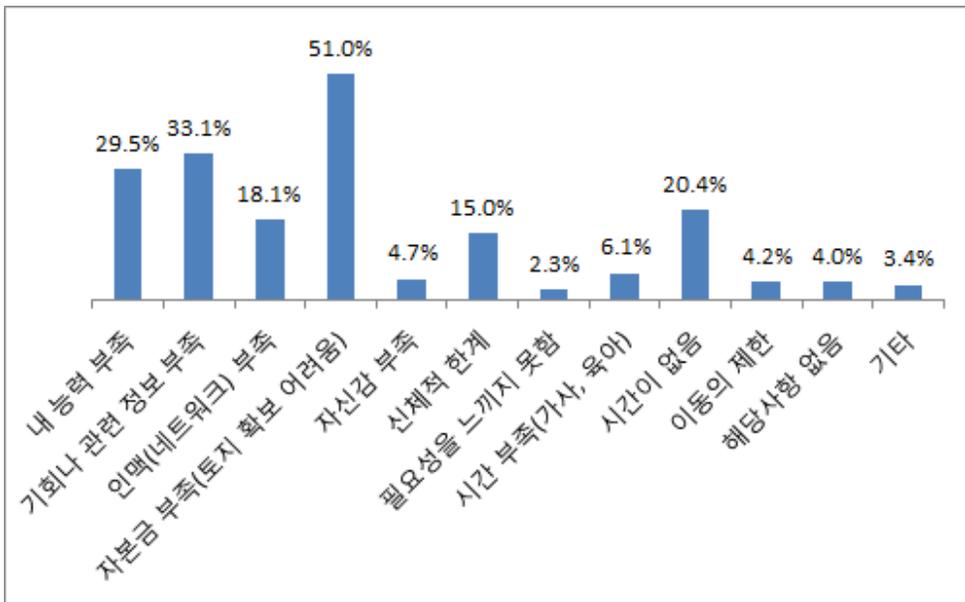
단위: %

		경제활동 동기						
		소득이 적어서	농사가 힘들어	재능 활용	사회 생활을 하고 싶어서	주변의 권유	농사 일이 좋아서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38.8	4.5	33.7	6.7	0.6	12.4	3.4
	2009~2010년	39.8	4.4	32.6	7.2	0.6	12.7	2.8
	2011~2012년	47.4	2.6	29.3	9.0	0.4	7.5	3.8
	2013~2014년	40.9	2.8	31.0	7.1	0.8	11.1	6.3
연령 대	40세 이하	41.6	2.6	26.0	6.5	1.3	16.9	5.2
	41~50세	47.8	2.0	30.5	4.8	0.4	11.6	2.8
	51~60세	41.6	2.7	34.4	6.1	0.3	9.9	5.1
	61세 이상	35.9	7.1	27.6	15.3	1.2	8.2	4.7
학력 구분	중졸 이하	58.2	1.8	23.6	1.8	0.0	10.9	3.6
	고졸	46.7	3.7	26.4	6.9	1.2	11.8	3.3
	전문대졸	48.2	3.6	29.1	6.4	0.0	5.5	7.3
	대졸	37.6	3.2	35.4	7.7	0.5	10.3	5.3
	대학원졸	31.3	3.8	33.8	15.0	0.0	16.3	0.0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46.5	3.7	33.5	5.6	0.7	7.1	3.0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39.8	2.8	30.9	8.1	0.4	11.4	6.5
	도시출신 귀농	40.7	3.4	30.5	8.8	0.3	12.5	3.7

2.8. 경제활동 장애요인

-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자본금 부족(토지 확보 어려움 포함)’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이 33.1%,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이 29.5%, ‘시간 부족(가사, 육아)’이 20.4%였음.

그림 2-16. 희망 경제활동 장애요인(복수응답)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능력부족이나 관련 기회·정보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음. ‘능력부족’과 ‘기회, 정보 부족’에 대하여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24.6%, 26.2%가, 2009~2010년 27.7%, 26.6%,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29.5%, 33.1%,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34.6%, 42.9%를 장애요인으로 들고 있음. 반면 ‘신체적 한계’는 18.3%, 16.8%, 14.9%, 11.4%로 점차 줄어들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능력 부족과 신체적 한계가 장애요인이었음. ‘능력부족’, ‘신체적 한계’가 40세 이하는 21.5%, 6.3%, 61세 이상은 36.6%, 33.7%였음. 반면 ‘자금 부족’과 ‘시간 부족’은 40세 이하는 55.7%, 16.5%, 61세 이상이 35.4%, 2.9%였음.
- 도시출신자는 기회·정보부족을 농촌출신자는 능력부족, 자금부족 등을 장애요인으로 드는 경향이 있음. ‘기회·정보부족’이 도시출신은 34.6%인 데 비해, 농촌출신의 고향귀농·귀촌자는 33.3%,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31.4%였음. 반면 ‘능력부족’, ‘자금부족’ 등에 대해 도시출신은 26.1%, 48.9%로, 농촌출신 고향귀농자(31.9%, 53.8%), 농촌출신의 타지역귀농·귀촌(32.5%, 51.8%)보다 적었음.

표 2-18.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장애요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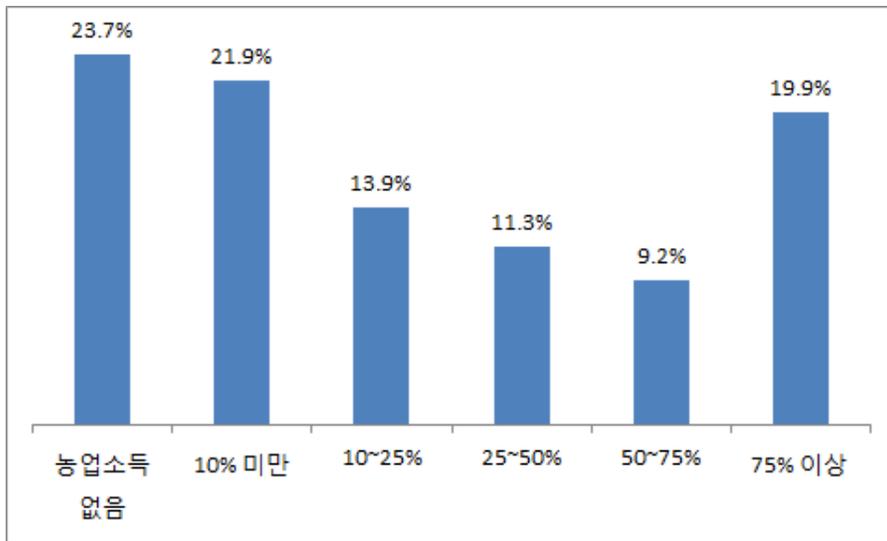
단위: %

		경제활동 장애요인						
		능력 부족	기회정보 부족	인맥 부족	자금 부족	신체적 한계	시간 부족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24.6	26.2	17.3	48.2	18.3	12.6	41.9
	2009~2010년	27.7	26.6	18.5	50.5	16.8	7.1	44.6
	2011~2012년	29.5	33.1	17.5	55.3	14.9	2.5	40.7
	2013~2014년	34.6	42.9	18.9	48.4	11.4	4.3	31.1
연령 대	40세 이하	21.5	27.8	20.3	55.7	6.3	16.5	43.0
	41~50세	25.4	34.1	17.0	57.2	8.7	9.5	37.9
	51~60세	30.8	34.5	19.7	52.6	12.9	3.2	40.3
	61세 이상	36.6	31.4	14.3	35.4	33.7	2.9	36.6
학력 구분	중졸 이하	41.8	25.5	16.4	47.3	20.0	1.8	32.7
	고졸	29.6	32.4	18.4	49.2	14.8	4.4	45.2
	전문대졸	23.4	34.2	18.0	64.0	9.9	8.1	35.1
	대졸	26.8	34.6	18.7	49.7	15.9	7.6	38.1
	대학원졸	41.7	32.1	14.3	46.4	16.7	4.8	35.7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31.9	33.3	13.2	53.8	17.9	5.9	36.3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32.5	31.4	21.2	51.8	14.1	4.3	37.6
	도시출신 귀농	26.1	34.6	19.5	48.9	13.2	7.7	41.8

2.9. 가구소득 중 농업소득

- 가구원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농업소득 없음’이 23.7%였고, ‘10% 미만’이 21.9%, ‘10~25%’가 13.9%였으며, ‘75% 이상’이 19.9%였음.

그림 2-17. 가구원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75% 이상이 농업소득이라는 비율이 많았음. ‘75% 이상’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29.8%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22.6%,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18.1%,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11.3%로 점차 낮아졌음. 반면 ‘농업소득 없음’은 같은 기간 15.4%, 22.6%, 22.1%, 32.8%로 점차 높아졌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업소득 비율이 높았음. ‘75% 이상’이 40세 이하는 33.3%, 41~50세가 25.3%, 51~60세가 17.3%, 61세 이상이 12.2%였음.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농업소득이 적었음. ‘50~75%’가 도시출신의 경우 7.8%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11.1%,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8.2%였음. 반면 ‘농업소득 없음’은 도시출신은 33.1%로, 농촌출신 고향귀농자(10.4%), 농촌출신의 타지역귀농·귀촌(24.5%)보다 많았음.

표 2-19.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농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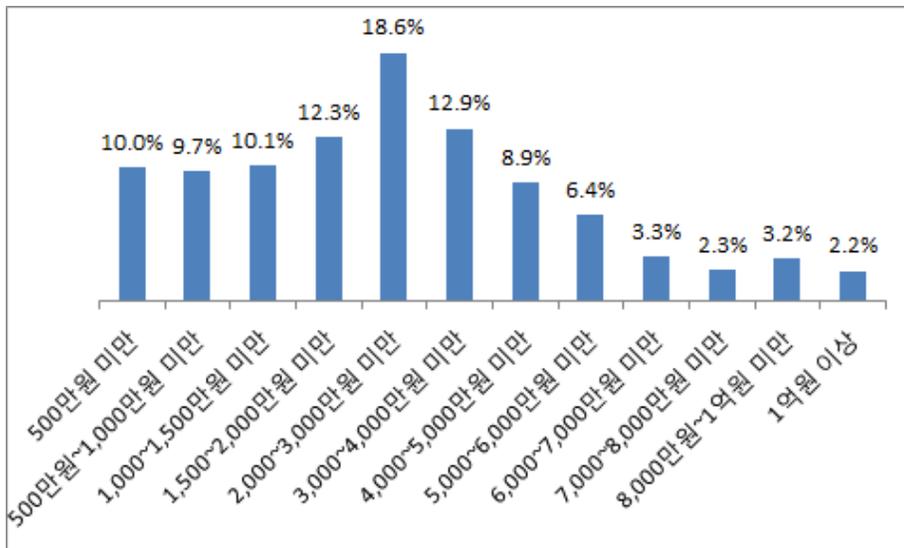
단위: %

		농업소득					
		농업 소득 없음	10% 미만	10~25 %	25~50 %	50~75 %	75% 이상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15.4	18.3	10.6	13.5	12.5	29.8
	2009~2010년	22.6	16.1	13.4	12.4	12.9	22.6
	2011~2012년	22.1	23.5	17.1	10.3	8.9	18.1
	2013~2014년	32.8	27.7	13.7	10.2	4.3	11.3
연령 대	40세 이하	26.9	15.4	11.5	5.1	7.7	33.3
	41~50세	21.6	19.8	8.1	12.8	12.5	25.3
	51~60세	23.7	24.4	15.0	11.7	7.9	17.3
	61세 이상	24.3	23.2	21.5	10.5	8.3	12.2
학력 구분	중졸 이하	22.2	16.7	16.7	11.1	11.1	22.2
	고졸	24.3	22.0	14.5	9.0	8.6	21.6
	전문대졸	19.0	22.4	8.6	12.9	10.3	26.7
	대졸	21.3	21.5	15.7	12.6	9.4	19.4
	대학원졸	36.5	28.2	9.4	9.4	8.2	8.2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10.4	21.9	14.3	15.1	11.1	27.2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24.5	24.5	17.8	8.9	8.2	16.0
	도시출신 귀농	33.1	20.2	11.0	10.5	7.8	17.5

2.10. 가구소득

-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계를 조사한 결과 1천만 원 미만이 19.7%, 1천만~2천만 원이 22.4%, 2천만~3천만 원이 18.6%, 3천만~5천만 원이 21.8%, 5천만 원 이상이 17.4%였음.

그림 2-18. 지난 1년간 소득 합계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가구 소득이 많았음. ‘500만 원 미만’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5.3%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5.9%,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9.2%,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17.9%로 점차 높아졌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었음. ‘500만 원 미만’이 40세 이하는 8.9%, 41~50세가 5.8%, 51~60세가 11.2%, 61세 이상이 14.9%였음. 반면 ‘2,000만~3,000만 원 미만’은 40세 이하는 22.8%, 41~50세가 19.7%, 51~60세가 19.5%, 61세 이상이 13.3%였음.

- 고학력자일수록 소득이 많았음. ‘7,000만 원 이상’은 고졸 이하가 5.8%인데 비해 대졸 이상은 18.6%였음. 반면 ‘500만 원 미만’은 고졸 이하가 42.8%, 대졸 이상이 16.9%였음.

표 2-20.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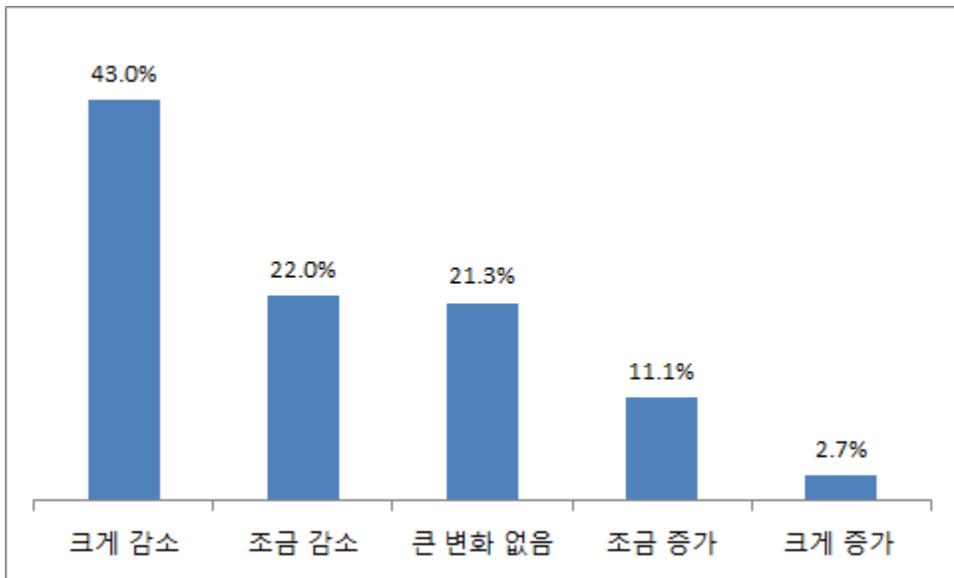
단위: %

		가구소득								
		500만 원 미만	500만~ 1,000만 원	1,000만 ~ 1,500만 원	1,500만 ~ 2,000만 원	2,000만 ~ 3,000만 원	3,000만 ~ 4,000만 원	4,000만 ~ 5,000만 원	5,000만 ~ 7,000만 원	7,000만 원 이상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5.3	8.1	8.6	12.9	18.7	14.4	9.6	13.9	8.6
	2009~2010년	5.9	11.3	10.2	10.8	18.8	15.1	10.8	8.6	8.6
	2011~2012년	9.2	10.3	9.9	15.2	21.3	10.6	8.2	8.9	6.4
	2013~2014년	17.9	9.3	11.7	9.7	15.2	12.8	7.4	8.2	7.8
연령 대	40세 이하	8.9	8.9	7.6	13.9	22.8	8.9	8.9	11.4	8.9
	41~50세	5.8	8.0	10.2	11.7	19.7	14.2	10.6	12.0	7.7
	51~60세	11.2	8.6	8.4	11.9	19.5	13.7	8.4	9.6	8.6
	61세 이상	14.9	14.4	13.8	13.3	13.3	11.6	7.7	5.5	5.5
학력 구분	중졸 이하	29.6	14.8	7.4	18.5	16.7	5.6	3.7	3.7	0.0
	고졸	13.2	14.7	10.5	10.9	20.2	9.7	7.4	7.8	5.8
	전문대졸	7.8	8.7	9.6	14.8	20.9	12.2	13.0	7.0	6.1
	대졸	6.3	6.5	9.9	12.1	18.4	15.5	9.4	11.6	10.4
	대학원졸	10.6	5.9	9.4	10.6	14.1	17.6	9.4	14.1	8.2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9.0	7.5	11.1	13.6	17.6	14.7	8.2	9.3	9.0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11.5	13.0	7.4	13.0	17.5	10.8	9.7	9.3	7.8
	도시출신 귀농	9.4	9.1	11.5	10.4	20.1	13.6	8.6	10.4	7.0

2.11. 소득 변화

- 귀농·귀촌 후 소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감소했다는 응답이 65%('크게 감소'가 43.0%, '조금 감소'가 22.0%), '큰 변화 없음'이 21.3%, 증가했다는 13.8%('조금 증가'가 11.1%, '크게 증가'가 2.7%)였음.

그림 2-19. 귀농·귀촌 후 소득 변화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귀농·귀촌 후 소득이 줄어든 비율이 낮았음. '크게 감소'가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39.7%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38.2%,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41.0%,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51.3%로 점차 높아졌음.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소득이 줄었다는 비율이 높았음. '크게 감소'가 도시출신의 경우 48.7%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37.4%, 농촌

출신 타지역귀농자는 40.5%였음. 반면 ‘조금 증가’는 도시출신은 8.5%로, 농촌출신 고향귀농자(15.7%), 농촌출신의 타지역귀농자(9.7%)보다 적었음.

표 2-21.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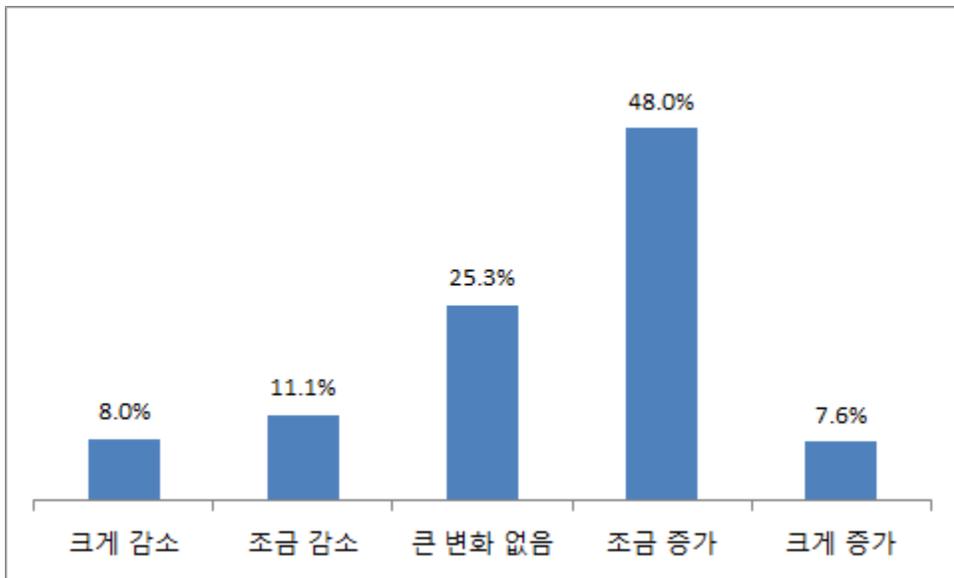
단위: %

		소득 변화				
		크게 감소	조금 감소	큰 변화 없음	조금 증가	크게 증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39.7	23.0	16.7	13.9	6.7
	2009~2010년	38.2	24.7	18.8	15.1	3.2
	2011~2012년	41.0	24.4	25.1	8.5	1.1
	2013~2014년	51.3	16.9	22.6	8.4	0.8
연령대	40세 이하	45.0	15.0	20.0	16.3	3.8
	41~50세	41.0	24.9	18.7	12.1	3.3
	51~60세	47.9	20.4	21.2	8.3	2.3
	61세 이상	35.2	23.6	25.3	13.7	2.2
학력 구분	중졸 이하	45.5	27.3	20.0	5.5	1.8
	고졸	35.7	24.4	23.3	14.0	2.7
	전문대졸	49.1	25.9	12.1	12.1	0.9
	대졸	47.0	19.1	20.1	10.9	2.9
	대학원졸	37.2	19.8	31.4	7.0	4.7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37.4	24.9	19.6	15.7	2.5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40.5	21.9	26.4	9.7	1.5
	도시출신 귀농	48.7	20.5	18.9	8.5	3.5

2.12. 소득 전망

- 향후 소득 전망을 조사한 결과 감소한다는 응답이 19.1%(‘크게 감소’가 8.0%, ‘조금 감소’가 11.1%), ‘변화 없음’이 25.3%, 증가한다가 55.6%(‘조금 증가’가 48.0%, ‘크게 증가’가 7.6%)였음.

그림 2-20. 향후 소득 전망



-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소득 전망이 긍정적이었음. ‘조금 증가’가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42.1%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47.8%,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50.5%,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50.6%로 점차 높아졌음. 반면 조금 감소는 같은 기간 13.4%, 12.4%, 10.7%, 8.9%였음.
-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전망이 긍정적이었음. ‘조금 증가’가 40세 이하는 56.3%, 41~50세가 50.2%, 51~60세가 49.7%, 61세 이상이 37.0%였음. 반면 ‘크게 감소’는 40세 이하는 1.3%, 41~50세가 5.1%, 51~60세가 9.6%,

61세 이상이 12.2%였음.

- 농촌출신자가 도시출신자보다 소득전망이 긍정적이었음. 도시출신자의 54.0%(‘조금 증가’가 47.3%, ‘크게 증가’가 6.7%)가 긍정적인 반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62.7%(‘조금 증가’가 49.8%, ‘크게 증가’가 12.9%)가 긍정적이었음.

표 2-22.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소득 전망

단위: %

		소득 전망				
		크게 감소	조금 감소	큰 변화 없음	조금 증가	크게 증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8.1	13.4	32.1	42.1	4.3
	2009~2010년	8.1	12.4	24.2	47.8	7.5
	2011~2012년	4.3	10.7	27.0	50.5	7.5
	2013~2014년	12.1	8.9	17.9	50.6	10.5
연령 대	40세 이하	1.3	11.3	21.3	56.3	10.0
	41~50세	5.1	7.7	27.5	50.2	9.5
	51~60세	9.6	12.7	21.6	49.7	6.3
	61세 이상	12.2	11.6	33.1	37.0	6.1
학력 구분	중졸 이하	16.4	18.2	10.9	50.9	3.6
	고졸	8.2	11.7	24.9	46.3	8.9
	전문대졸	9.5	8.6	21.6	50.0	10.3
	대졸	7.0	10.7	27.1	47.9	7.3
	대학원졸	5.9	8.2	35.3	47.1	3.5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5.4	10.4	21.5	49.8	12.9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10.0	11.9	26.7	48.1	3.3
	도시출신 귀농	8.6	11.2	26.2	47.3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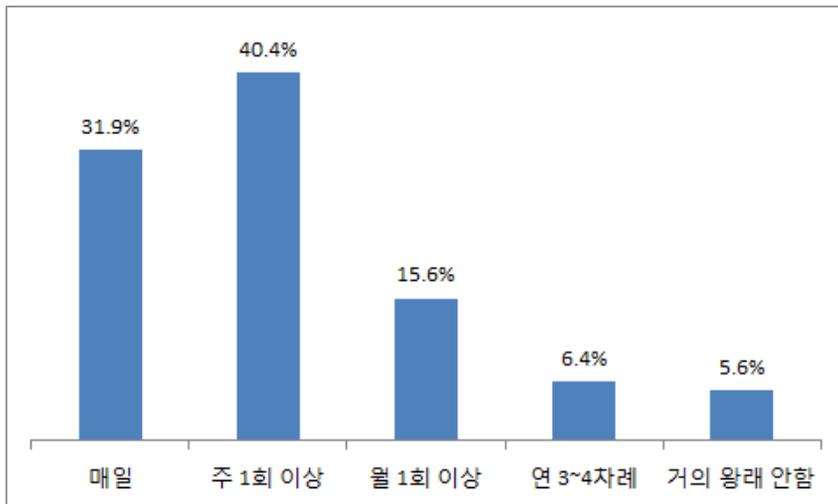
3. 지역사회활동 실태

-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주민들과의 왕래 정도와 갈등 요인, 참여하는 지역 모임과 참여 이유, 장애요인과, 귀농·귀촌인이 마을·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3.1. 주민 왕래

- 마을주민들과의 왕래 빈도를 조사한 결과 ‘매일’이 31.9%, ‘주 1회 이상’이 40.4%, ‘월 1회 이상’이 15.6%, ‘연 3~4차례’가 6.4%, ‘거의 왕래 안 함’이 5.6%였음.

그림 2-21. 마을주민들과 왕래 빈도



-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주민들과 왕래하는 횟수가 늘어남. ‘매일’은 40세 이하가 21.0%, 41~50세가 30.9%, 51~60세가 32.5%, 61세 이상이 37.2%였

음. 반면 ‘주 1회 이상’은 40세 이하는 45.7%, 41~50세가 40.8%, 51~60세가 38.8%, 61세 이상이 40.0%였음.

○ 학력이 높을수록 주민들과 왕래가 다소 적었음. ‘중졸 이하’는 주 1회 이상(매일+주 1회) 왕래자가 87.2%인 반면, 대졸자는 69.9%, 대학원졸자는 59.3%였음.

○ 농촌출신 귀농·귀촌자가 도시출신자보다 지역주민과 왕래를 더 자주하였음. ‘매일’ 왕래하는 경우가 도시출신은 25.4%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44.7%였음.

표 2-23.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주민 왕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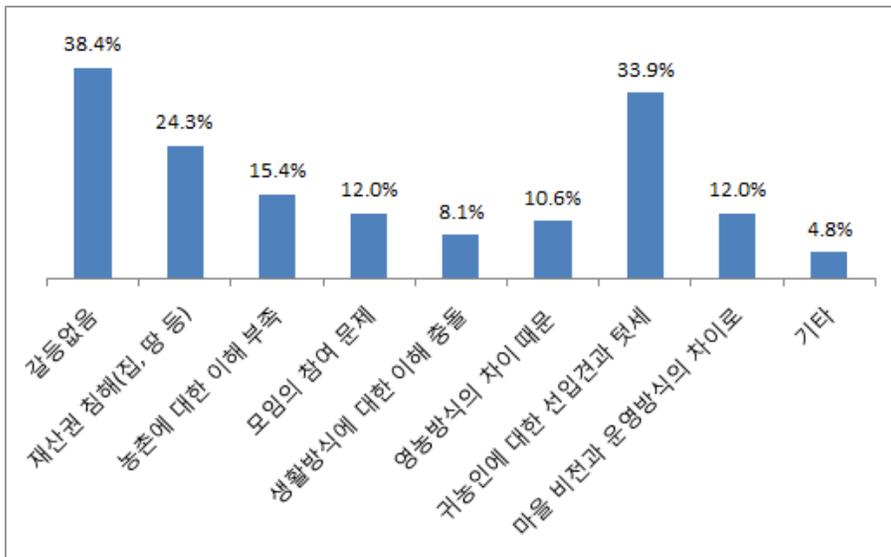
단위: %

		주민왕래				
		매일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연 3~4차례	거의 왕래 안함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36.7	37.7	14.5	8.7	2.4
	2009~2010년	29.2	40.0	13.5	7.6	9.7
	2011~2012년	31.5	40.9	16.8	5.0	5.7
	2013~2014년	31.0	42.6	16.3	5.0	5.0
연령 대	40세 이하	21.0	45.7	17.3	8.6	7.4
	41~50세	30.9	40.8	17.3	7.0	4.0
	51~60세	32.5	38.8	16.0	6.3	6.3
	61세 이상	37.2	40.0	12.2	5.0	5.6
학력 구분	중졸 이하	52.7	34.5	7.3	3.6	1.8
	고졸	35.7	40.0	12.2	5.1	7.1
	전문대졸	29.3	44.8	18.1	4.3	3.4
	대졸	29.5	40.4	18.2	7.3	4.6
	대학원졸	22.1	37.2	17.4	11.6	11.6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44.7	33.5	13.1	3.6	5.1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29.1	44.4	14.6	7.1	4.9
	도시출신 귀농	25.4	42.0	19.0	7.2	6.4

3.2. 주민들과 갈등 요인

- 귀농·귀촌 후 마을주민들과 갈등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갈등 없음’이 38.4%로 가장 많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가 33.9%, ‘집이나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가 24.3%,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15.4%로 나타났음.

그림 2-22.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요인(복수응답)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주민 갈등이 없는 경우가 많았음. ‘갈등이 전혀 없었음’이 2008년 이전은 24.4%지만, 2013년 이후는 47.4%로 점차 높아졌음. 반면 ‘모임의 참여 문제’, ‘선입견과 텃세’, ‘마을 운영방식의 차이’는 2008년 이전은 17.9%, 35.3%, 23.4%인 데 비해 2013년 이후는 7.2%, 32.3%, 3.6%였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었음. ‘선입견과 텃세’가 40세 이하는 24.7%, 41~50세가 31.7%, 51~60세가 36.3%, 61세 이상이 36.6%였음.

- 고학력자일수록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 ‘모임의 참여 문제’, ‘영농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음. 고졸 이하는 각각 30.8%, 15.6%, 14.4%였고, 대졸 이상은 29.9%, 30.8%, 23.4%였음.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재산권 침해’와 ‘선입견과 텃세’를 느꼈음. 도시출신의 경우 24.9%, 40.9%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23.8%, 20.4%,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24.3%, 38.4%였음.

표 2-24.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주민갈등 요인(복수응답)

단위: %

		주민갈등 요인								
		갈등이 전혀 없었음	재산권 침해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	모임의 참여 문제	도시 생활 방식의 충돌	영농 방식 차이 때문	선입견 텃세 때문	마을 운영 방식의 차이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24.4	23.4	16.9	17.9	7.0	13.4	35.3	23.4	6.0
	2009~2010년	36.5	26.5	11.6	14.4	9.4	9.9	34.3	15.5	4.4
	2011~2012년	41.9	25.1	17.2	10.1	9.7	9.0	34.1	9.0	3.4
	2013~2014년	47.4	22.7	14.7	7.2	6.4	10.8	32.3	3.6	5.6
연령대	40세 이하	48.1	24.7	14.8	11.1	6.2	12.3	24.7	3.7	3.7
	41~50세	33.2	25.6	17.2	9.2	8.8	14.9	31.7	13.4	4.2
	51~60세	38.4	26.1	13.9	13.4	6.8	8.9	36.3	12.4	4.5
	61세 이상	41.1	18.9	16.6	13.7	10.9	7.4	36.6	13.1	5.1
학력 구분	중졸 이하	54.7	15.1	15.1	5.7	9.4	5.7	24.5	17.0	9.4
	고졸	43.4	24.8	15.7	9.9	7.0	8.7	33.9	11.2	3.7
	전문대졸	36.5	19.1	21.7	12.2	7.0	10.4	35.7	13.0	6.1
	대졸	36.0	25.6	13.2	12.9	8.2	12.7	33.0	12.4	4.0
	대학원졸	27.4	29.8	16.7	17.9	11.9	10.7	42.9	8.3	3.6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42.4	23.8	17.1	14.5	8.2	15.6	20.4	16.0	2.6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40.0	24.3	12.5	11.0	7.8	6.7	38.4	9.8	7.8
	도시출신 귀농	34.8	24.9	16.3	10.5	8.0	9.7	40.9	9.9	4.4

3.3. 지역모임이나 활동 참여 정도

- 지역사회활동 참여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있음’이 66.8%로 나타났음. 모임 종류별로 보면, 농민단체, 공익봉사활동 등에 대한 참여는 다소 적은 반면, 마을회의나 행사, 농업인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 친목단체 참여는 활발한 편이었음.

표 2-25. 지역 모임이나 활동 참여 정도

단위: %

	전혀 참여 안 함	거의 참여 안 함	불참	가끔 참여	적극적 참여	참여
마을회의나 행사	10.5	11.5	22.0	28.9	49.1	78.0
마을 내 영농관련 경제활동	33.0	16.3	49.3	21.2	29.4	50.6
공익 봉사활동	32.5	25.8	58.3	28.2	13.4	41.6
여가 문화활동	28.0	20.4	48.4	35.1	16.5	51.6
농민단체	46.7	20.0	66.7	20.6	12.7	33.3
친목단체	26.7	13.1	39.8	32.9	27.3	60.2
종교활동	45.9	13.9	59.8	15.5	24.6	40.1
농업인 교육	17.2	9.1	26.3	33.6	40.2	73.8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	17.4	13.3	30.7	37.5	31.7	69.2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농민단체 참여가 늘어남. ‘농민단체’가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43.1%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37.3%,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31.7%,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24.5%로 점차 낮아졌음. 반면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은 같은 기간 61.3%, 69.3%, 71.2%, 73.2%였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마을회의나 행사’ 참여가 많았음. 40세 이하는 65.8%, 41~50세가 77.2%, 51~60세가 77.3%, 61세 이상이 85.8%였음.

- 학력이 높을수록 마을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친목단체, 지역귀농·귀촌인 모임 등에 대한 참여는 적은 반면, 농업인 교육 참여는 활발하였음.
- 농촌출신자가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공익봉사활동’, ‘여가문화활동’이 활발하였음. 도시출신의 경우 각 활동 참여 비율이 42.5%, 39.6%, 48.4%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63.4%, 45.2%, 55.4%,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49.0%, 40.6%, 52.1%였음.

표 2-26.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활동참여 비율(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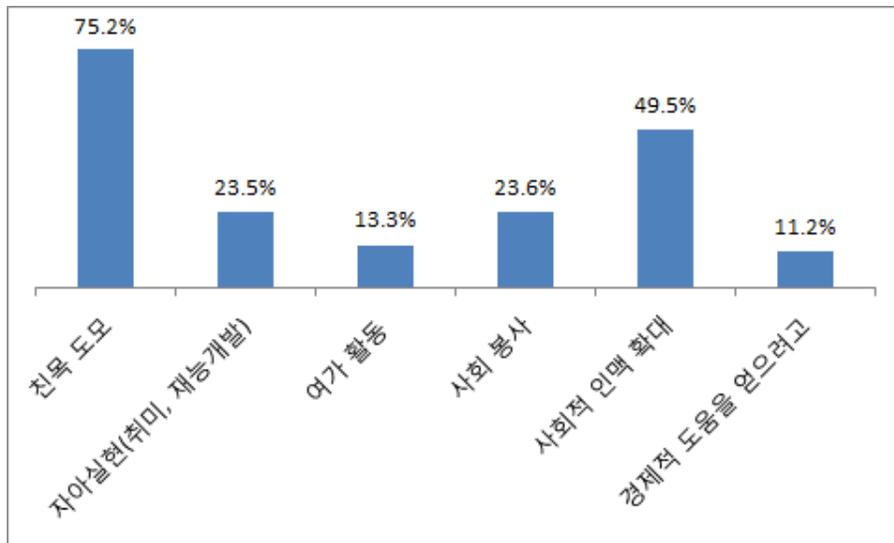
단위: %

		참여분야								
		마을 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 활동	공익 봉사 활동	여가 문화 활동	농민 단체	친목 단체	종교 활동	농업인 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85.6	59.2	49.2	60.0	43.1	65.1	39.9	72.9	61.3
	2009~2010년	77.6	57.2	47.9	55.7	37.3	59.6	45.0	72.9	69.3
	2011~2012년	81.8	48.8	42.9	51.2	31.7	63.3	39.0	77.6	71.2
	2013~2014년	69.0	41.8	30.5	42.7	24.5	53.3	38.2	71.1	73.2
연령대	40세 이하	65.8	37.2	31.7	41.8	25.3	50.0	31.3	58.2	63.8
	41~50세	77.2	51.8	45.8	52.2	35.3	60.2	32.9	70.6	64.5
	51~60세	77.3	52.9	42.4	50.6	35.6	59.8	43.9	77.9	74.4
	61세 이상	85.8	51.0	38.1	57.9	29.3	65.0	48.2	76.8	67.5
학력구분	중졸 이하	94.0	72.4	43.4	59.6	43.8	77.5	52.1	75.9	82.4
	고졸	79.7	54.7	39.0	56.6	33.3	65.3	41.5	70.7	70.0
	전문대졸	78.6	52.7	44.6	51.9	29.6	64.8	33.0	76.1	76.7
	대졸	76.5	46.9	40.8	46.9	34.6	57.0	39.5	74.0	65.6
	대학원졸	69.1	43.2	46.4	55.1	27.6	44.3	45.1	77.8	66.3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79.4	63.4	45.2	55.4	41.1	78.1	36.6	81.8	71.7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77.2	49.0	40.6	52.1	29.1	52.0	41.2	70.2	67.9
	도시출신 귀농	77.7	42.5	39.6	48.4	30.3	53.2	42.4	71.0	68.0

3.4. 지역사회활동 참여 이유

- 지역사회활동 참여 이유 조사 결과 ‘친목 도모’가 75.2%로 가장 많고, ‘사회적 인맥 확대’가 49.5%, ‘사회 봉사’가 23.6%, ‘자아실현(취미, 재능개발)’이 23.5%, ‘여가 활동’이 13.3%,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가 11.2%였음.

그림 2-23. 지역사회활동 참여 이유(복수응답)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사회적 인맥 확대’로 지역사회활동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음.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39.9%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45.8%,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50.7%,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58.7%로 점차 높아졌음.
-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회적 인맥 확대’가 많았음. 40세 이하는 60.8%, 41~50세가 53.2%, 51~60세가 48.3%, 61세 이상이 41.6%였음. 반면 ‘친목 도모’는 40세 이하가 74.3%, 41~50세는 74.3%, 51~60세 74.8%, 61세 이상이 78.1%였음.

- 고학력일수록 자아실현을 이유로 한 사회 참여비율이 높았고, 저학력일수록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음. ‘자아실현’은 고졸 이하가 34.5%인 데 비해 대졸 이상은 55.7%였음.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는 고졸 이하가 30.0%, 대졸 이상은 18.2%였음.
- 도시출신은 여가활동을 이유가 많았고, 농촌출신은 사회적 인맥확대 이유가 많았음. ‘여가활동’이 도시출신의 경우 15.9%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9.9%,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12.9%였음. 반면 ‘사회적 인맥확대’는 도시출신은 48.4%로, 농촌출신 고향귀농자(52.4%), 농촌출신의 타지역귀농·귀촌자(48.9%)보다 적었음.

표 2-27.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지역사회활동 참여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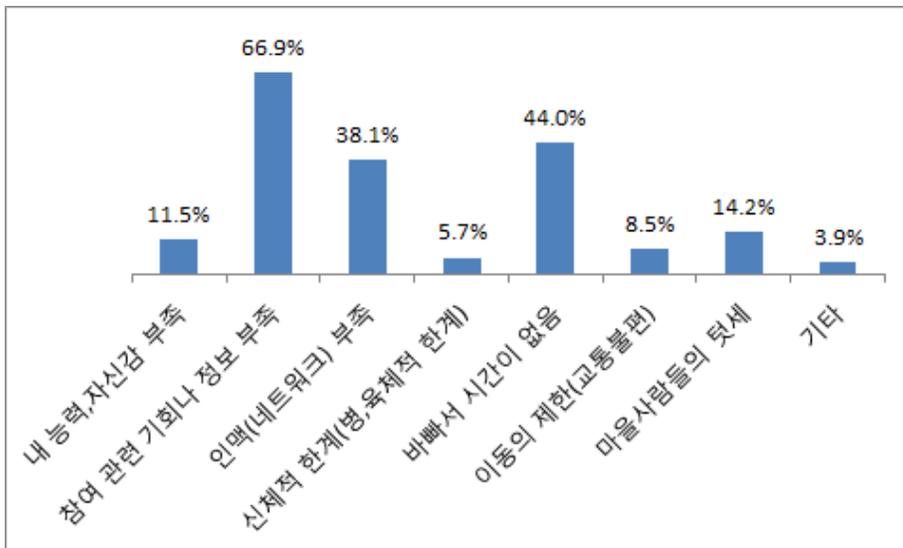
단위: %

		지역사회활동 참여 이유					
		친목 도모	자아실현 (취미, 재능개발)	여가 활동	사회 봉사	사회적 인맥 확대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69.5	32.5	15.8	28.6	39.9	8.4
	2009~2010년	76.5	22.3	14.5	22.9	45.8	13.4
	2011~2012년	77.2	19.6	13.4	23.9	50.7	11.6
	2013~2014년	76.8	21.3	10.6	19.3	58.7	11.8
연령 대	40세 이하	74.3	20.3	17.6	16.2	60.8	8.1
	41~50세	74.3	27.5	9.8	21.1	53.2	10.2
	51~60세	74.8	22.1	13.0	24.9	48.3	12.2
	61세 이상	78.1	20.8	18.0	27.5	41.6	12.4
학력 구분	중졸 이하	72.7	14.5	14.5	32.7	49.1	16.4
	고졸	82.0	20.0	11.2	22.0	46.8	13.6
	전문대졸	72.6	24.8	11.5	23.9	54.0	9.7
	대졸	74.3	24.7	14.8	21.0	52.3	9.9
	대학원졸	67.9	31.0	15.5	33.3	39.3	8.3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75.1	21.2	9.9	23.8	52.4	14.7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75.4	24.6	12.9	22.0	48.9	11.0
	도시출신 귀농	76.6	23.6	15.9	24.5	48.4	8.2

3.5. 지역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

- 지역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참여 관련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이 66.9%로 가장 많았고, ‘바빠서 시간이 없음’이 44.0%, ‘인맥(네트워크) 부족’이 38.1%, ‘마을사람들의 텃세’가 14.2%로 나타났다.

그림 2-24. 지역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복수응답)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관련 기회·정보 부족 때문이라는 비율이 점차 늘어남.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54.2%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65.2%,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70.5%,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75.2%로 점차 높아졌음. 반면 ‘이동의 제한’ 때문이라는 이유는 같은 기간 11.9%, 7.9%, 7.8%, 7.2%였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체적 한계가 장애요인으로 많이 작용하였음. ‘신체적 한계’가 40세 이하는 2.6%, 41~50세가 3.5%, 51~60세가 3.6%, 61세 이상이 15.2%였음.

- 고학력자일수록, 농촌보다는 도시출신자가 ‘마을사람들의 텃세’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들었음. 고졸 이하 28.6%에 비해 대졸 이상은 35.2%였음. 반면 ‘내 능력, 자신감 부족’은 고졸 이하 46.3%에 비해 대졸 이상은 14.9%였음. 한편 ‘마을사람들의 텃세’가 도시출신의 경우 18.6%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5.6%,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16.2%였음.

표 2-28.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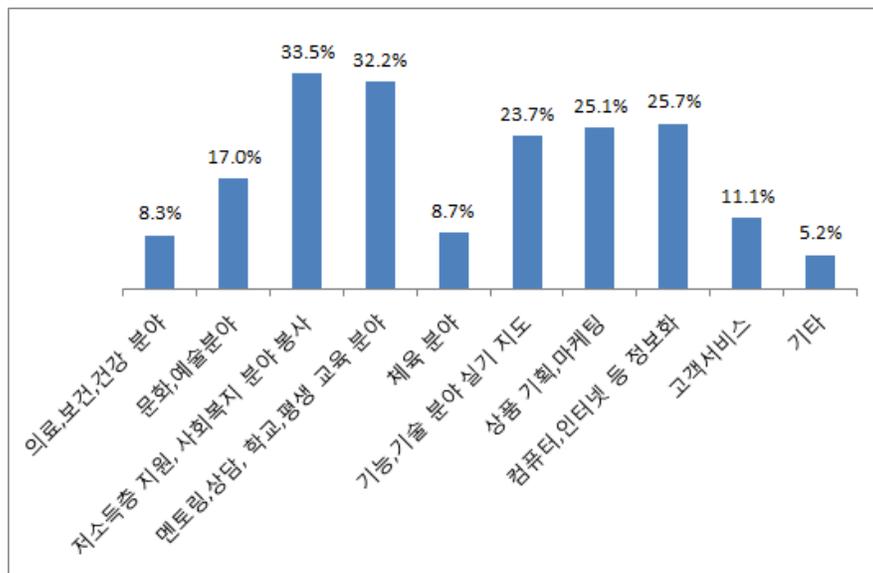
단위: %

		지역사회활동 참여 장애요인							
		내 능력, 자신감 부족	참여 기회, 정보 부족	인맥 (네트 워크) 부족	신체적 한계	바빠서 시간이 없음	이동의 제한	마을 사람들의 텃세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7.5	54.2	35.3	7.0	50.2	11.9	15.4	3.0
	2009~2010년	11.8	65.2	34.8	5.1	52.2	7.9	13.5	5.1
	2011~2012년	13.8	70.5	35.1	7.1	41.0	7.8	15.7	4.1
	2013~2014년	12.4	75.2	46.0	3.6	35.6	7.2	12.0	3.2
연령 대	40세 이하	10.4	57.1	36.4	2.6	53.2	10.4	7.8	6.5
	41~50세	11.2	64.5	32.8	3.5	54.8	11.2	12.0	3.1
	51~60세	10.3	70.4	39.7	3.6	41.0	7.5	16.5	4.4
	61세 이상	15.8	66.7	41.5	15.2	30.4	6.4	15.8	2.9
학력 구분	중졸 이하	31.5	57.4	31.5	14.8	31.5	7.4	16.7	1.9
	고졸	14.8	68.4	38.1	7.8	42.6	8.6	11.9	3.3
	전문대졸	12.6	59.5	40.5	3.6	48.6	10.8	11.7	5.4
	대졸	7.8	69.0	38.5	4.3	45.8	8.0	15.0	3.8
	대학원졸	7.1	66.7	33.3	3.6	42.9	9.5	20.2	6.0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15.0	67.7	37.2	9.4	51.9	6.4	5.6	3.4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9.7	68.7	42.9	3.5	37.5	10.8	16.2	2.3
	도시출신 귀농	10.5	66.2	36.3	4.2	42.4	8.0	18.6	5.0

3.6. 지역발전 기여 분야

- 마을·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 가능한 분야 조사 결과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 분야 봉사’가 33.5%로 가장 많았고, ‘멘토링·상담 및 학교·평생 교육 분야’ 32.2%,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가 25.7%, ‘상품 기획·마케팅’이 25.1%, ‘기능, 기술 분야 실기 지도’가 23.7%, ‘문화·예술 분야’가 17.0%, 그 밖에 고객서비스(11.1%), 체육분야(8.7%), 보건·건강 분야(8.3%) 등이 있었음.

그림 2-25. 마을·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 분야(복수응답)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학교·평생교육’ 분야 기여가 가능하다는 비율이 많았음. ‘학교·평생교육’이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41.7%지만, 2009~2010년 36.4%, 2011~2012년 28.6%, 2013년 이후 25.6%였음. 한편 연령대에 따라서는 40세 이하는 25.9%, 41~50세가 31.2%, 51~60세가 32.9%, 61세 이상이 35.8%였음. 반면 ‘정보화’는 40세 이하는 39.5%, 41~50세가 31.9%, 51~60세가 21.8%,

61세 이상이 19.1%였음. 한편 고학력일수록 문화·예술에, 저학력자일수록 사회·복지, 기술·기능 분야에 사회기여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음.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문화, 예술’, ‘상품 기획과 마케팅’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도시출신의 경우 21.1%, 30.3%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13.4%, 21.0%,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14.5%, 21.5%였음.

표 2-29.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지역발전 기여 분야(복수응답)

단위: %

		지역발전 기여 분야									
		의료, 보건, 건강	문화, 예술	사회 복지 분야	학교 평생 교육	체육 분야	기능, 기술	상품 기획, 마케팅	정보화	고객 서비스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10.8	23.5	29.4	41.7	5.4	21.1	23.0	21.1	5.9	4.9
	2009~2010년	9.1	10.8	34.1	36.4	11.4	29.5	23.9	21.6	8.0	6.8
	2011~2012년	7.1	15.0	37.6	28.6	7.5	23.7	21.8	29.3	15.4	5.3
	2013~2014년	7.1	18.5	31.9	25.6	11.0	21.7	31.1	28.3	13.0	4.3
연령 대	40세 이하	9.9	16.0	33.3	25.9	9.9	16.0	22.2	39.5	3.7	2.5
	41~50세	6.9	20.8	27.3	31.2	8.8	23.8	25.4	31.9	10.8	5.8
	51~60세	7.5	16.1	35.2	32.9	9.3	22.0	30.3	21.8	11.9	5.2
	61세 이상	11.6	14.5	38.2	35.8	6.4	30.6	15.0	19.1	12.7	5.2
학력 구분	중졸 이하	6.0	10.0	42.0	6.0	10.0	52.0	10.0	16.0	24.0	12.0
	고졸	9.7	9.2	39.5	17.6	14.3	29.8	21.4	20.6	16.0	8.4
	전문대졸	10.6	15.9	41.6	19.5	8.8	31.0	21.2	30.1	8.0	1.8
	대졸	7.0	20.4	27.7	41.5	6.3	17.2	31.6	28.9	9.0	3.9
	대학원졸	9.4	29.4	27.1	62.4	3.5	10.6	20.0	24.7	3.5	2.4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9.5	13.4	35.1	32.4	12.2	26.0	21.0	25.6	11.8	5.7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8.2	14.5	37.5	30.5	7.8	27.0	21.5	24.2	12.9	7.0
	도시출신 귀농	7.0	21.1	30.0	33.5	7.0	20.0	30.3	27.0	9.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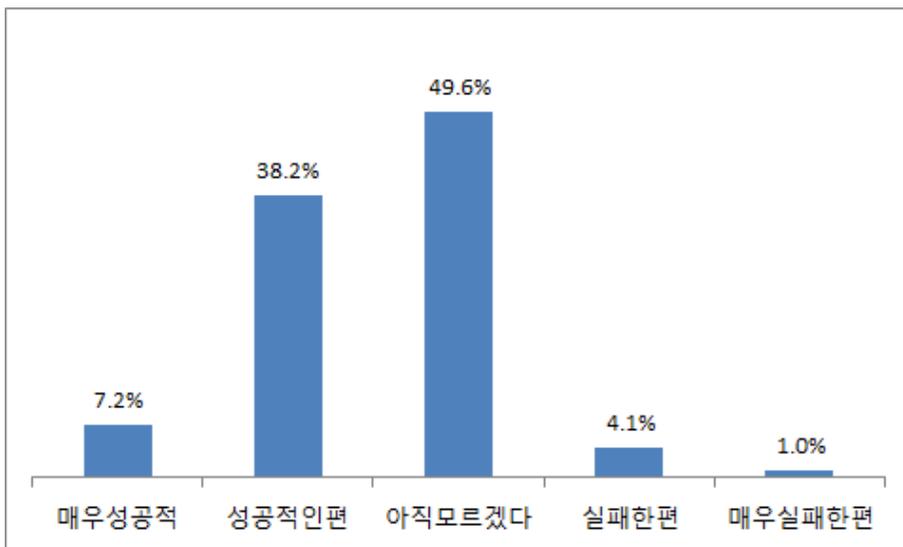
4. 귀농·귀촌에 대한 평가

-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귀농·귀촌에 대한 평가와 분야별 성취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도시로 돌아갈 의향 여부와, 있다면 향후 이주 시기 및 이유 등을 파악하였음.

4.1. 귀농·귀촌 평가

- 자신의 귀농·귀촌 성공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45.4%(‘매우 성공적’이 7.2%, ‘성공적인 편’이 38.2%), ‘아직 모르겠다’가 49.6%, 실패했다가 5.1%(‘실패한 편’이 4.1%, ‘매우 실패한 편’이 1.0%)였음.

그림 2-26. 귀농·귀촌 성공 정도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공적인 편’이라는 비율이 점차 늘어남.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50.7%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44.4%,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37.1%,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25.0%로 점차 낮아졌음. 연령별로는 40세 이하는 18.8%, 41~50세가 34.7%, 51~60세가 39.8%, 61세 이상이 49.2%였음. 반면 ‘아직 모르겠다’는 40세 이하는 70.0%, 41~50세가 51.5%, 51~60세가 50.0%, 61세 이상이 36.9%였음.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에서 37.5%, 고졸이 40.6%가 성공적이라고 본 반면, 대졸은 49.6%, 대학원졸은 48.8%였음.

표 2-30.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평가

단위: %

		귀농·귀촌 성공 정도				
		매우 성공적	성공적인 편	아직 모르겠다	실패한 편	매우 실패한 편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12.0	50.7	30.1	5.7	1.4
	2009~2010년	8.0	44.4	40.6	5.3	1.6
	2011~2012년	4.7	37.1	54.3	3.6	0.4
	2013~2014년	5.4	25.0	66.5	2.3	0.8
연령 대	40세 이하	8.8	18.8	70.0	2.5	0.0
	41~50세	8.8	34.7	51.5	4.0	1.1
	51~60세	5.3	39.8	50.0	3.8	1.3
	61세 이상	7.8	49.2	36.9	5.6	0.6
학력 구분	중졸 이하	7.1	30.4	51.8	10.7	0.0
	고졸	5.1	35.5	52.7	5.1	1.6
	전문대졸	3.4	39.3	50.4	5.1	1.7
	대졸	9.8	39.8	46.8	2.9	0.7
	대학원졸	4.8	44.0	50.0	1.2	0.0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6.9	33.6	54.5	4.0	1.1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5.9	43.9	45.0	4.1	1.1
	도시출신 귀농	8.0	38.3	48.9	4.0	0.8

4.2. 귀농·귀촌 성취

- 귀농·귀촌인들의 분야별 성취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의 만족, 지역사회와의 어울림 등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경제적 소득과 도시에서의 자신의 경험 활용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었음.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얻는 데 성공’, ‘원만한 가족관계와 화합에 성공’, ‘마을주민들과 어울려 사는 데 성공’ 등에 대해서는 각각 57.0%, 50.0%, 49.9%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적 소득과 안정에 성공’은 51.6%, ‘귀농·귀촌 전 경험과 전문역량 활용에 성공’은 51.1%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음.

표 2-31. 분야별 성취 정도

단위: %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얻는 데 성공	0.9	5.4	36.8	41.3	15.7
경제적 소득과 안정에 성공	9.5	42.1	35.1	9.9	3.4
원만한 가족관계와 화합에 성공	1.9	10.3	37.9	39.7	10.3
마을주민들과 어울려 사는 데 성공	1.7	8.9	39.5	38.9	11.0
공동체와 생태적 가치추구에 성공	2.8	18.3	45.1	28.9	4.8
귀농·귀촌 전 경험과 전문역량 활용에 성공	8.6	42.5	31.1	14.1	3.7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경제적 소득과 안정’, ‘귀농·귀촌 전 경험 활용’ 등에 대한 성취 정도가 높았음.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2.86%, 2.85%이었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2.68%, 2.69%,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2.42%, 2.5%,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2.35%, 2.48%로 점차 낮아졌음.

- 고학력자일수록 ‘개인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귀농·귀촌 전 경험활용’의 성취 정도가 높았음.
-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개인의 행복과 만족’의 성취 정도 비율이 높았지만, ‘마을주민과의 어울림’은 농촌출신자가 도시출신자보다 높았음.

표 2-32.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귀농·귀촌 성과(5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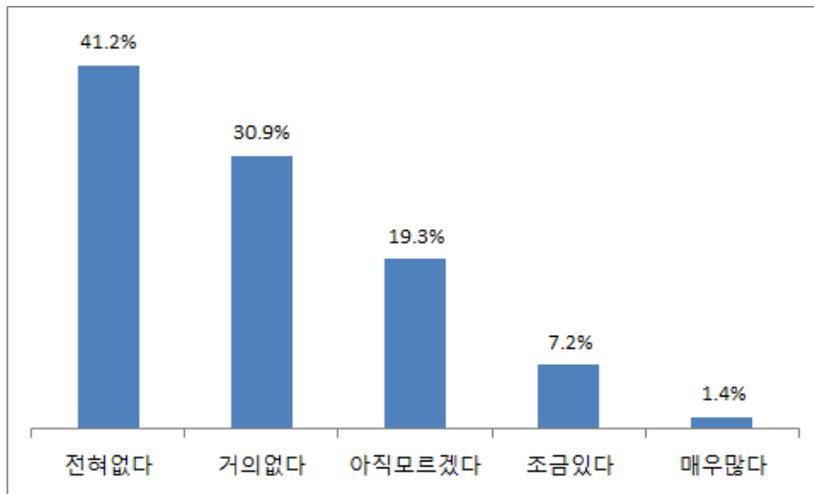
		귀농·귀촌 성과 평가					
		개인 행복과 만족	경제적소 득과안정	원만한 가족관계/ 화합	마을 주민과 어울림	공동체 생태적 가치	귀농 전 경험 활용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3.84	2.86	3.53	3.60	3.35	2.85
	2009~2010년	3.71	2.68	3.44	3.46	3.26	2.69
	2011~2012년	3.56	2.42	3.49	3.46	3.10	2.52
	2013~2014년	3.57	2.35	3.38	3.44	2.95	2.48
연령 대	40세 이하	3.60	2.60	3.32	3.34	2.96	2.43
	41~50세	3.67	2.60	3.51	3.55	3.21	2.66
	51~60세	3.64	2.47	3.45	3.45	3.11	2.60
	61세 이상	3.68	2.64	3.50	3.52	3.20	2.66
학력 구분	중졸 이하	3.46	2.60	3.53	3.48	3.16	2.67
	고졸	3.52	2.51	3.41	3.50	3.06	2.50
	전문대졸	3.55	2.47	3.28	3.47	3.13	2.53
	대졸	3.78	2.60	3.54	3.50	3.20	2.68
	대학원졸	3.73	2.50	3.48	3.30	3.13	2.72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3.53	2.61	3.40	3.57	3.18	2.69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3.71	2.63	3.50	3.52	3.15	2.59
	도시출신 귀농	3.72	2.46	3.50	3.42	3.12	2.58
전체		3.66	2.55	3.46	3.48	3.14	2.61

* 5점척도: ① 절대 아니다~⑤ 매우 그렇다

4.3. 도시 이주 의향

- 귀농·귀촌인들의 도시 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72.1%('전혀 없다'가 41.2%, '거의 없다'가 30.9%) 였고, '아직 모르겠다'가 19.3%, 있다는 8.6%('조금 있다'가 7.2%, '매우 많다'가 1.4%)였음.

그림 2-27. 도시 이주 의향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도시 이주 의향이 '전혀 없다' 비율이 점차 많아짐.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56.2%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41.2%,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39.2%,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31.2%로 점차 낮아졌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시 이주 의향이 낮았음. '조금 있다', '매우 많다'가 40세 이하는 5.0%, 3.8%, 41~50세가 8.0%, 0.7%, 51~60세가 6.3%, 1.5%, 61세 이상이 9.3%, 1.1%였음. 반면 '전혀 없다'는 50세 이하는 81.7%, 51세 이상이 81.8%였음.

- 농촌출신자보다는 도시출신자가 도시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도시출신의 경우 있다는 응답이 10.6%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8.3%, 농촌출신 타지역귀농자는 5.9%였음. 반면 없다는 응답은 도시출신은 70.8%로, 농촌출신 고향귀농자(71.9%), 농촌출신 타지역귀농·귀촌자(75.1%)보다 적었음.

표 2-33.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도시 이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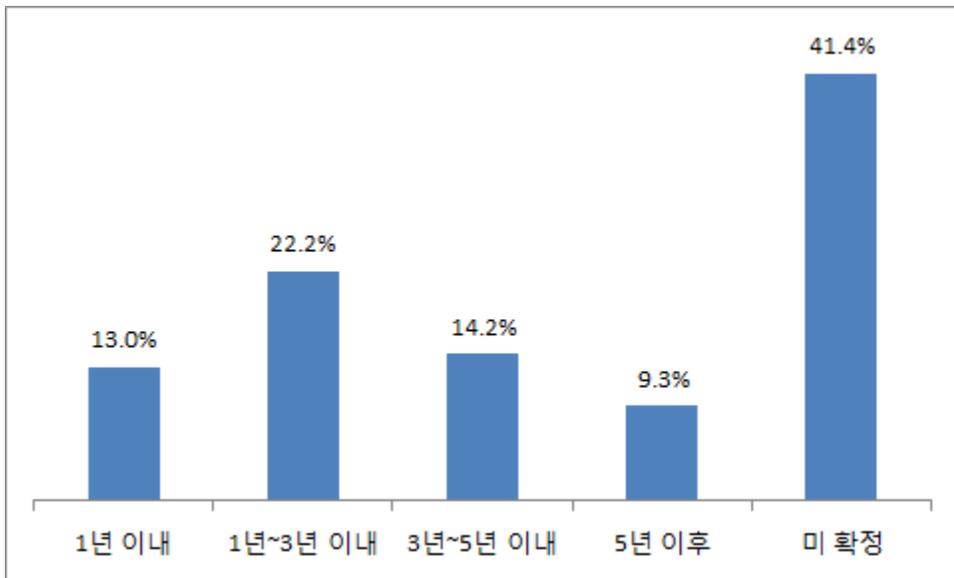
단위: %

		도시 이주 의향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아직 모르겠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56.2	27.1	7.6	8.6	0.5
	2009~2010년	41.2	32.1	16.6	8.0	2.1
	2011~2012년	39.2	30.2	22.3	7.6	0.7
	2013~2014년	31.2	33.5	27.7	5.4	2.3
연령 대	40세 이하	37.5	31.3	22.5	5.0	3.8
	41~50세	44.2	29.9	17.2	8.0	0.7
	51~60세	38.9	35.2	18.1	6.3	1.5
	61세 이상	42.9	23.6	23.1	9.3	1.1
학력 구분	중졸 이하	42.9	30.4	21.4	5.4	0.0
	고졸	43.6	26.1	22.6	6.6	1.2
	전문대졸	40.2	27.4	22.2	9.4	0.9
	대졸	42.5	34.6	14.9	6.3	1.7
	대학원졸	27.1	35.3	23.5	11.8	2.4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43.0	28.9	19.9	6.5	1.8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44.6	30.5	19.0	4.8	1.1
	도시출신 귀농	37.9	32.9	18.6	9.3	1.3

4.4. 도시 이주 시기

- 도시 이주 의향이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도시 이주 계획 시기를 조사한 결과 ‘1년 이내’가 13.0%, ‘1년~3년 이내’가 22.2%, ‘3년~5년 이내’가 14.2%, ‘5년 이후’가 9.3%, ‘미확정’이 41.4%였음.

그림 2-28. 이주 계획 시기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1년 이내’ 이주하려는 비율이 점차 늘어남. ‘1년 이내’가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9.7%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8.6%,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12.0%,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19.6%로 점차 높아졌음.

표 2-34.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이주 계획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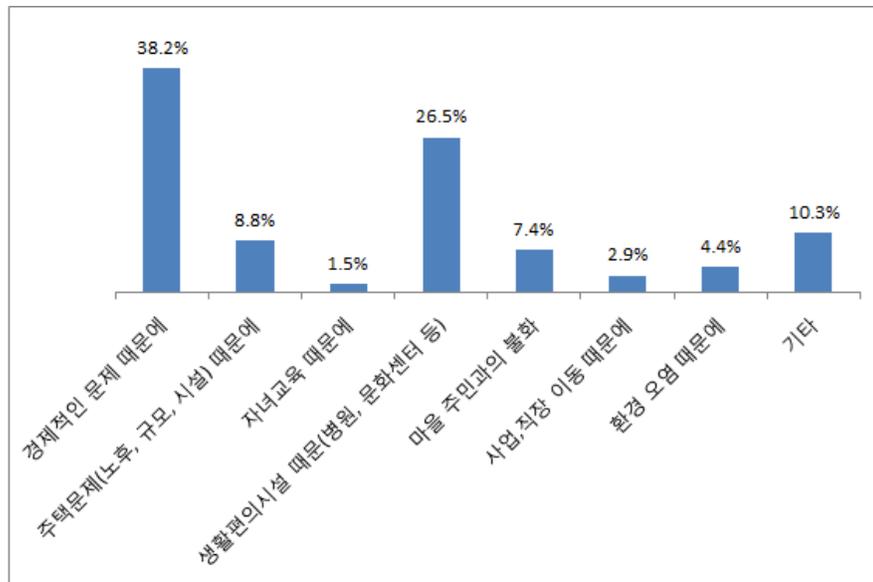
단위: %

		이주 계획 시기				
		1년 이내	1년~3년 이내	3년~5년 이내	5년 이후	미확정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9.7	25.8	12.9	6.5	45.2
	2009~2010년	8.6	17.1	17.1	8.6	48.6
	2011~2012년	12.0	18.0	18.0	12.0	40.0
	2013~2014년	19.6	28.3	8.7	8.7	34.8
연령 대	40세 이하	0.0	25.0	25.0	16.7	33.3
	41~50세	10.8	24.3	10.8	8.1	45.9
	51~60세	15.9	21.7	13.0	7.2	42.0
	61세 이상	11.9	21.4	16.7	9.5	40.5
학력 구분	중졸 이하	16.7	16.7	11.1	0.0	55.6
	고졸	13.8	29.3	13.8	5.2	37.9
	전문대졸	0.0	16.7	11.1	22.2	50.0
	대졸	14.3	24.5	16.3	12.2	32.7
	대학원졸	13.3	6.7	20.0	6.7	53.3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13.7	23.5	7.8	13.7	41.2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14.0	27.9	14.0	4.7	39.5
	도시출신 귀농	9.4	18.8	20.3	9.4	42.2

4.5. 도시 이주 이유

- 도시로 이주하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가 38.2%로 가장 많았고, ‘생활편의시설 때문(시장, 병원, 문화센터 등)’이 26.5%, ‘기타’가 10.3%, ‘주택문제(노후, 규모, 시설) 때문에’가 8.8%로 나타났음.

그림 2-29. 도시로 이주하려는 이유



-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생활편의시설 때문에 떠나려는 경향이 많은 반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떠난다는 비율은 적었음. ‘생활편의시설 때문’이라는 비율을 보면 2008년 이전 귀농·귀촌자는 33.3%지만, 2009~2010년 귀농·귀촌자는 28.1%, 2011~2012년 귀농·귀촌자는 27.5%, 2013년 이후 귀농·귀촌자는 18.9%였음. 반면 ‘경제적 문제’의 비율은 같은 기간 33.3%, 25.0%, 45.0%, 45.9%로 점차 높아졌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활편의시설 때문’의 비율이 높았음. 41~50세가

18.2%, 51~60세가 29.1%, 61세 이상이 37.8%였음. 반면 ‘경제적 문제’는 40세 이하는 50.0%, 41~50세가 51.5%, 51~60세가 36.4%, 61세 이상이 27.0%였음.

- 도시출신자는 농촌출신자보다 ‘생활편의시설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았음. 도시출신의 경우 32.1%인 데 비해,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15.2%였음. 반면 ‘경제적 문제’는 도시출신은 28.6%, 농촌출신 고향귀농자는 56.5%였음.

표 2-35. 주요 개인특성에 따른 도시 이주 이유

단위: %

		도시 이주 이유							
		경제적 문제	주택 문제	자녀 교육	편의 시설 부족	주민과 불화	사업 이동 때문	환경 오염 때문	기타
귀농 귀촌 연도	2008년 이전	33.3	7.4	3.7	33.3	3.7	0.0	7.4	11.1
	2009~2010년	25.0	15.6	0.0	28.1	12.5	3.1	6.3	9.4
	2011~2012년	45.0	5.0	2.5	27.5	5.0	2.5	2.5	10.0
	2013~2014년	45.9	8.1	0.0	18.9	8.1	5.4	2.7	10.8
연령대	40세 이하	50.0	20.0	0.0	0.0	10.0	10.0	0.0	10.0
	41~50세	51.5	6.1	3.0	18.2	3.0	6.1	3.0	9.1
	51~60세	36.4	7.3	1.8	29.1	7.3	0.0	7.3	10.9
	61세 이상	27.0	8.1	0.0	37.8	10.8	2.7	2.7	10.8
학력 구분	중졸 이하	31.3	12.5	0.0	31.3	6.3	0.0	6.3	12.5
	고졸	34.9	14.0	0.0	23.3	9.3	2.3	7.0	9.3
	전문대졸	52.9	5.9	0.0	29.4	5.9	0.0	0.0	5.9
	대졸	38.1	2.4	2.4	28.6	7.1	2.4	4.8	14.3
	대학원졸	50.0	0.0	0.0	21.4	7.1	14.3	0.0	7.1
귀농 귀촌 유형	농촌출신 고향귀농	56.5	8.7	4.3	15.2	8.7	0.0	0.0	6.5
	농촌출신 타지역귀농	25.8	9.7	0.0	32.3	6.5	3.2	9.7	12.9
	도시출신 귀농	28.6	8.9	0.0	32.1	7.1	5.4	5.4	12.5

제 3 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조사 개요

- 귀농·귀촌자 대상의 장기 추적 1차 조사에서는 가구 및 거주지 현황, 귀농·귀촌 경로, 귀농·귀촌 시기, 귀농·귀촌 준비경험, 지역결정요인 등 귀농·귀촌 기본실태와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귀농·귀촌에 대한 자기 평가 등에 대한 종합 실태를 파악하였음.
- 지역별 귀농·귀촌자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된 1,209명의 조사협조자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28일까지 우편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중 1,000명이 응답함(유효 응답률 82.7%).
- 응답자 특성을 보면 귀농·귀촌 지역분포는 경상권 37.6%, 전라권 28.3%, 충청권 19.1%, 경기·강원권 거주자가 15.0%였음. 남성이 82.0%였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67.4%였고, 40대 이하가 37.9%, 연령대별 50대가 42.6%, 60대 이상이 19.5%였음. 귀농·귀촌 연도별로는 ‘2008년 이전’이

21.0%, ‘2009~2010년’ 18.7%, ‘2011~2012년’ 28.7%, ‘2013~2014년’ 25.3%이었음.

□ 귀농·귀촌 정착 과정

- 귀농·귀촌 준비 없이 귀농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9.2%), 최근 귀농·귀촌 자일수록 더 적었음.
- 귀농·귀촌 전 직업으로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고(25.8%), 그 다음이 ‘사무직’(18.3%), ‘행정·경영·관리자’(11.7%), ‘기능직’(9.8%), ‘판매서비스직’(7.6%) 순이었음. 최근 들어 행정·경영·관리자나 사무직이 점차 늘고 있었음.
- 귀농 시 가족 이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족 전원이 함께 이주’가 가장 많고(51.4%), 그 다음이 ‘가장이 먼저 이주 후 나중에 가족 합류’(27.5%)가 많았음. 귀농 초기에는 혼자 이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이 합류하는 경향을 보였음.
- 귀농·귀촌 동기로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31.4%)가 가장 많았고,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24.8%),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24.3%), ‘새 일자리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위해’(22.2%) 등이 있었음.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전원생활 때문이 많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은퇴 후 여가, 전원생활을 위해, 고학력일수록 은퇴 후 여가나 전원생활을 위해,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생태 및 공동체 가치 추구를 위해 귀농하는 비율이 높았음.
- 귀농·귀촌 경로 유형으로 ‘도시출신 귀농(I턴)’(40.8%)이 가장 많았고, ‘농촌

출신 고향귀농(U턴)'(30.2%), '농촌출신 타지역귀농(J턴)'(28.9%)이 있었음.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도시출신이 많았음.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학력일수록 도시출신 귀농자가 많았음.

-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귀농·귀촌정책이 잘되어 있는 곳에 귀농·귀촌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음.
- 귀농·귀촌 과정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여유 자금 부족'이 가장 많았고(47.2%), '영농기술 습득'(27.4%), '농지 구입의 어려움'(25.5%), '생활 여건(의료·복지·문화·쇼핑) 불편'(23.8%)이 그 다음이었음. 이 밖에 '지역주민과의 갈등'(16.1%), '주거문제'(12.0%), '가족·지인과 멀어짐'(10.8%), '일자리 부족'(10.6%) 등도 있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농지 구입과 영농기술 습득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주민갈등과 영농기술 습득에, 저학력일수록 영농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지역주민 갈등과 주거 문제와 관련한 장애를, 농촌출신은 여유자금 문제에 대한 장애를 겪고 있었음.
- 귀농·귀촌자들은 정착 과정의 성공적 정착의 요인으로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57.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34.5%), '정부·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28.7%),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26.2%) 등이 그 다음이었음.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정부정책과 지자체의 지원을 중요시하고 있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경험 활용을 중요시하였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중요하게 여겼음.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소박한 삶과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음.
- 귀농·귀촌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유형을 보면 '읍면사무소 소재지 인접지역'이 가장 많고(35.6%), 그 다음으로 원격지역(29.3%), 면소재지(18.5%),

시군청 소재지(11.0%), 대도시 내 중소도시(5.6%) 등의 순이었음.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도시출신 귀농자일수록 중소도시나 읍·면소재지 인접지역에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었음.

□ 경제활동 실태

- 귀농·귀촌자 중에 경제활동으로 ‘농업에만 전념’하는 비율이 40.2%, ‘농업과 다른 경제활동을 겸업’이 35.8%, ‘농업 이외 타 분야 경제활동에만 종사’가 13.3%, ‘은퇴 또는 무직(텃밭 정도의 취미 농업 포함)’이 10.6%였음. 귀농·귀촌이 오래될수록 농업종사를 많이 하지만, 젊을수록, 고학력일수록,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농업에만 종사하기보다는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았음.
- 귀농·귀촌자 중 영농종사자들의 주력 품목으로는 ‘과수’(34.7%)가 가장 많았고, 이 밖에 ‘쌀·식량작물’(16.3%), ‘특용작물·버섯·약용작물’(15.2%), ‘채소·산나물’(15.1%) 등이 있었음. 축산은 4.9%밖에 되지 않았고,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축산 비율이 적었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과수 품목이 많았고, 농촌출신 고향귀농자일수록 쌀·식량작물이 많았음.
- 연간 농산물 판매액 규모를 조사한 결과 500만 원 미만이 46.5%, 500만~2천만 원 미만이 26.2%, 2천만~5천만 원이 17.2%, 5천만 원 이상이 10.1%였음.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촌출신자가 도시출신자보다 판매액이 많았음.
- 향후 영농규모 확대계획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45.6%)가 그럴 계획으로 나타났다.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촌출신일수록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이었음.

- 귀농자들은 농업 이외 분야별 ‘농산물 판매’ 활동(60.7%), ‘농산물 가공’(40.8%), ‘농촌관광사업’(10.8%), ‘자영업’(13.7%), ‘농외 직장’(21.5%), ‘농외 시간제 노동’(33.2%), ‘농업 노동’(35.1%) 등에 참여하고 있었음. 귀농·귀촌 연수가 오래될수록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였고, 젊을수록 시간제 근무와 농업 노동 참여가 많았음.
- 희망하는 경제활동 분야로 ‘농산물(가공식품) 가공 및 판매(직거래·온라인 판매 등)’(70.9%)가 가장 많았고, 이 밖에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46.1%), ‘농업 종사’(27.8%) 등이 있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농산물 가공 판매와 농외 분야에 대한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고, 저학력자일수록 농업에만 전념하는 것을, 고학력자일수록 가공 및 판매 활동 참여를,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농외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고 있었음.
- 경제활동을 하려는 이유로는 ‘소득이 적어서’(42.2%)가 가장 많았고, ‘내가 가진 재능(장점)을 활용하고 싶어서’(31.4%), ‘농사일이 좋아서’(10.6%),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7.6%) 등이 있었음. 고학력자일수록 ‘재능활용’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많았음.
- 경제활동 장애요인으로서는 ‘자본금 부족(토지 확보 어려움 포함)’(51.0%)이 가장 많고,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33.1%),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29.5%), ‘시간 부족(가사, 육아)’(20.4%) 등이 있었음.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능력부족이나 관련 기회·정보 부족이, 나이가 많을수록 능력이나 자금부족 그리고 신체적 한계가,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기회·정보 부족, 농촌출신자가 도시출신자보다 능력부족, 자금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많이 작용하였음.
- 연 가구소득은 1천만 원 미만이 19.7%, 1천만~2천만 원이 22.4%, 2천만~3천만 원이 18.6%, 3천만~5천만 원이 21.8%, 5천만 원 이상이 17.4%였는

데,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젊을수록, 고학력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음.

- 귀농·귀촌 후 소득변화를 보면 감소한 경우(65%)가 증가한 경우(13.8%)보다 훨씬 많았는데,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소득이 많이 줄었음. 하지만 향후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진 응답자(19.1%)보다 증가한다고 보는 귀농·귀촌자(55.6%)가 훨씬 많았음. 최근 귀농·귀촌자일수록, 젊을수록, 도시출신자보다 농촌출신자가 미래 소득전망이 긍정적이었음.

□ 지역사회활동 실태

- 귀농·귀촌자들의 마을 주민들과의 왕래 빈도를 보면 ‘매일’이 31.9%, ‘주 1회 이상’이 40.4%, ‘월 1회 이상’이 15.6%, ‘연 3~4차례’가 6.4%, ‘거의 왕래 안 함’이 5.6%였음. 학력이 높을수록 주민들과 왕래가 다소 적었음. 농촌출신자가 도시출신자보다 왕래 횟수가 많았음.
-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조사한 결과 ‘갈등 없음’(38.4%)도 많았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33.9%), ‘집이나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24.3%),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15.4%)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주민 갈등이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 고학력자일수록 ‘농촌에 대한 이해 부족’, ‘모임 참여 문제’, ‘영농방식의 차이’ 등으로, 도시출신자는 농촌출신자보다 ‘재산권 침해’와 ‘선입견과 텃세’ 등으로 갈등을 겪었음.
- 대다수 귀농·귀촌자(66.8%)가 지역사회활동 참여 경험이 있었는데, 모임 종류별로 보면 농민단체, 공익봉사활동 등에 대한 참여는 다소 적은 반면, 마

을회의나 행사, 농업인 교육,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 친목단체 참여는 활발한 편이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농민단체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마을회의나 행사’ 참여가 많아졌음. 학력이 높을수록 마을회의나 행사,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 활동, 친목단체, 지역귀농·귀촌인 모임 등에 대한 참여는 적은 반면, 농업인 교육 참여는 활발하였음. 농촌출신자가 도시출신자보다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 ‘공익봉사활동’, ‘여가 문화활동’이 활발하였음

-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친목 도모’(75.2%)가 가장 많고, 이 밖에 ‘사회적 인맥 확대’(49.5%), ‘사회 봉사’(23.6%), ‘자아실현(취미, 재능개발)’(23.5%) 등도 있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젊을수록 ‘사회적 인맥 확대’하려는 이유가 많았음. 고학력일수록 자아실현을 이유로, 저학력일수록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음.
- 지역사회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참여 관련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66.9%)이 가장 많았고, ‘바빠서 시간이 없음’(44.0%), ‘인맥(네트워크) 부족’(38.1%)과 ‘마을사람들의 텃세’(14.2%) 등이 있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최근일수록 관련 기회·정보 부족 때문이라는 비율이 많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체적 한계가 장애요인으로 많이 작용하였음. 고학력자, 도시출신은 ‘마을사람들의 텃세’ 때문이라는 이유를 많이 들었음.
- 귀농·귀촌자가 마을·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 가능한 분야로는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 분야 봉사’(33.5%)가 가장 많았고, ‘멘토링·상담 및 학교·평생교육 분야’(32.2%), ‘컴퓨터·인터넷 등 정보화’(25.7%), ‘상품 기획·마케팅’(25.1%), ‘기능, 기술 분야 실기 지도’(23.7%), ‘문화·예술 분야’(17.0%), 그 밖에 고객서비스(11.1%), 체육분야(8.7%), 보건·건강 분야(8.3%) 등이 있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학교·평생교육’ 분야 기여가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았음. 고학력일수록 문화·예

술에, 저학력자일수록 사회·복지, 기술·기능 분야에 사회기여가 가능하다고 하였음.

□ 귀농·귀촌에 대한 자기 평가

- 자신의 귀농·귀촌이 성공적이다(45.5%)라는 평가가 실패이다(5.1%)라는 평가보다 월등히 많았음.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공적인 편이라는 비율이 점차 늘어남.
- 귀농·귀촌인들의 분야별 성취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개인의 만족, 지역사회와 어울림 등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경제적 소득과 도시에서의 자신의 경험 활용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경제적 소득과 안정’, ‘귀농·귀촌 전 경험 활용’ 등에 대하여, 고학력자일수록 ‘개인의 행복과 만족’ 그리고 ‘귀농·귀촌 전 경험 활용’의 성취 정도가 높았음.
- 귀농·귀촌인 중 도시로의 역이주 의향이 있는 사람(8.6%)은 매우 적었고, 대다수(72.1%)는 그럴 의향이 없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촌출신자가 도시 역이주 의향이 적었음.
- 도시로 이주하려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38.2%)가 가장 많았고, ‘생활편의시설 때문(시장, 병원, 문화센터 등)’(26.5%), ‘주택문제(노후, 규모, 시설) 때문에’(8.8%) 등이 있었음. 귀농·귀촌 시기가 오래될수록 생활편의시설 때문에 떠나려는 경향이 많은 반면 경제적 문제 때문에 떠난다는 비율은 적었음.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시출신자가 농촌출신자보다 ‘생활편의시설 때문’의 비율이 높았음.

2. 시사점

- 최근 들어 귀농·귀촌자들의 특성이 다소 변화하고 있음.
 - 정부의 각종 귀농·귀촌 관련한 교육·지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준비 없이 귀농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혼자 이주보다는 가족 전체가 이주하고 있었음.
 - 화이트칼라에 해당하는 행정·경영·관리자나 사무직의 귀농·귀촌이 점차 늘고 있음.
 - 순수 도시출신자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생계형보다 도시 생활을 떠나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귀농·귀촌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짐.

- 귀농·귀촌자들은 정착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 생활편의시설의 불편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다수가 도시로의 재이주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음.
 - 경제적인 문제, 생활편의시설 등의 불편함으로 재이주를 고려하는 귀농·귀촌인도 있었지만 매우 극소수였음.
 -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었고, 자신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향후 농촌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음.
 -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귀촌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영농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아졌음.

- 귀농·귀촌자들은 농업발전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이 있었음.
 - 귀농·귀촌자들은 40% 가까이가 40대 이하이고, 60% 이상이 대졸자였음.
 - 기존 주민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텃세 그리고 귀농·귀촌자들의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일부 갈등을 경험하지만,

대다수는 마을 주민들과 잦은 왕래를 하였고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음.

- 귀농·귀촌자들은 영농활동 참여뿐 아니라 사회복지, 학교·평생교육, 정보화, 마케팅, 기능·기술,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있어 마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음.

○ 귀농·귀촌 정착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함.

- 귀농·귀촌자들은 정착지 선정 그리고 성공적 정착에 있어 정부의 지원과 공무원의 지원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또한 경제활동이나 지역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음.
- 농촌 경험이 없는 순수 도시출신자와 농촌출신자는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양상과 욕구에서 차이가 있었음. 또한 연령 및 학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음.
- 다양한 귀농·귀촌자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부 록

귀농·귀촌 실태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소로서, 이번에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귀농·귀촌 유형별 정착
실태 및 지역사회 역할 확대 방안에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처리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
은 절대 없습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동봉된 회송용 봉투에 넣으시어
바로 회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문의사항]

마상진 연구위원 (02-3299-4258 msj@krei.re.kr)

남기천 연구원 (02-3299-4385 nkc1108@krei.re.kr)

1. 귀하는 언제 귀농·귀촌하셨습니까? (_____) 년도
2. 귀하의 귀농·귀촌 준비기간은? ()

① 준비기간 없음	② 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2년 미만
⑤ 2년~3년 미만	⑥ 3년 이상
3. 귀하가 귀농·귀촌하기 전에 사시던 곳은 어디입니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4. 귀하가 귀농·귀촌하기 직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행정·경영·관리자
 - ② 전문직(교수, 의사, 변호사, 종교인)
 - ③ 예술가
 - ④ 사무직
 - ⑤ 판매·서비스직
 - ⑥ 농림어업
 - ⑦ 기능직 및 장치·기계 조작 관련직
 - ⑧ 단순 노동자(공장, 건설현장)
 - ⑨ 자영업자
 - ⑩ 군인
 - ⑪ 학생
 - ⑫ 주부
 - ⑬ 무직
 - ⑭ 기타(_____)
5. 귀하가 처음 귀농·귀촌할 때 가족이 함께 이주해 오셨습니까? ()
 - ① 가족 전원이 함께 이주
 - ② 가장이 먼저 이주 후 나중에 가족 합류
 - ③ 가장이 혼자 이주했고 지금도 혼자 생활
 - ④ 지인과 함께 이주

6. 귀하가 귀농·귀촌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 ()

- ① 도시에서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 ② 농촌이 도시보다 주택 구입이 쉬워서
- ③ 실업이나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 ④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 ⑤ 집안의 가업 이음
- ⑥ 농사일이 좋아서
- ⑦ 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 ⑧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 ⑨ 가족·친지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서
- ⑩ 자녀교육을 위해서
- ⑪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서
- ⑫ 생태·공동체 등의 가치추구를 위해
- ⑬ 새 일자리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위해
- ⑭ 기타(_____)

7. 귀하의 귀농·귀촌 유형을 다음에서 고른다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

- ① 농촌 출생 → 도시 취업 → 고향 귀농
- ② 농촌 출생 → 도시 취업 → 타 지역 귀농
- ③ 도시 출생 → 도시 취업 → 귀농 ④기타(_____)

8. 귀하가 현 거주지를 귀농·귀촌지로 택한 동기 두 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 ()

- ① 전에 살던 곳 근처라서(출근, 통학 등)
- ② 타 지역에 비해 자연 환경이 좋아서
- ③ 고향이어서
- ④ 친척, 지인이 사는 등 연고가 있어서
- ⑤ 생활 환경이 편리해서
- ⑥ 귀농·귀촌정책이 잘되어 있어서
- ⑦ 농사지을 여건이 좋아서

- ⑧ 농사를 안 지어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 ⑨ 주거 확보가 용이해서
- ⑩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 ⑪ 자녀 교육을 위해서
- ⑫ 기타(_____)

9. 귀하가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은 큰 어려움 두 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 ()

- ① 일자리 부족
- ② 여유 자금 부족
- ③ 농지 구입의 어려움
- ④ 자녀 교육
- ⑤ 지역 주민과의 갈등
- ⑥ 주거 문제
- ⑦ 생활 여건(의료·복지·문화·쇼핑) 불편
- ⑧ 영농기술 습득
- ⑨ 건강·체력 문제
- ⑩ 가족이나 지인 등과 멀어짐(외로움)
- ⑪ 가족과의 합의
- ⑫ 기타(_____)

10. 귀하가 귀농·귀촌 정착과정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두 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 ()

- ① 농촌사회와 농촌주민에 대한 사전 이해와 교육
- ② 경제적인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
- ③ 행복과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 ④ 정부정책이나 귀농·귀촌지역의 지자체와 공무원의 지원
- ⑤ 귀농·귀촌 지역 마을주민과 지도자들과의 관계
- ⑥ 배우자나 자녀와의 가족관계
- ⑦ 귀농·귀촌 이전에 갖고 있던 전문적인 경험, 지식, 능력 활용
- ⑧ 기타(_____)

□ **경제 생활**

11. 현재 귀하는 주로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 ① 농업에만 전념
- ② 농업과 다른 경제활동을 겸업
- ③ 농업 이외 타 분야 경제활동에만 종사
- ④ 은퇴 또는 무직 (텃밭 정도의 취미 농업 포함) } → 13번으로 바로 이동

12. 귀하의 주력품목(판매액이 가장 많은)은 무엇입니까? ()

- ① 쌀·식량작물 ② 특용작물·버섯·약용작물
- ③ 과수 ④ 화훼·관상작물
- ⑤ 채소·산나물 ⑥ 축산
- ⑦ 어업 ⑧ 기타(_____)

12-1. 귀댁의 연간 농산물 판매액 규모는? ()

- ① 거의 없음 ② 120만 원 미만
- ③ 120만 ~ 300만 원 미만 ④ 300만 ~ 500만 원 미만
- ⑤ 500만 ~ 1천만 원 미만 ⑥ 1천만 ~ 2천만 원 미만
- ⑦ 2천만 ~ 3천만 원 미만 ⑧ 3천만 ~ 5천만 원 미만
- ⑨ 5천만 ~ 1억원 미만 ⑩ 1억 ~ 2억 원 미만
- ⑪ 2억 원 이상

12-2. 귀댁의 영농 규모는? ()

농 지	논	평	가 축	한우·젓소	두
	밭	평		돼지	두
	과수원	평		닭	수
	초지·임야	평		기타: ()	

12-3. 귀하는 향후 현재의 영농규모를 늘릴 생각이십니까? ()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직 모르겠다 ③ 늘릴 계획이다

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제활동을 얼마나 하십니까?

농외 소득 활동	활동 정도		
	하지 않음	특정시기 에만 함	일상적 으로 함
농산물 가공(장류, 액즙 등)	①	②	③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활동(직거래, 온라인 판매 등)	①	②	③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	①	②	③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①	②	③
일반 직장 취업	①	②	③
농외 분야 시간제 근무(또는 아르바이트)	①	②	③
농업 임금노동(품삯 노동 포함)	①	②	③

13-1. 현재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경제활동을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 ()

- ① 농업에 종사
- ② 농산물(가공식품) 가공 및 판매(직거래·온라인 판매 등)
- ③ 농촌관광사업(주말농장, 민박 등)
- ④ 자영업(장사, 가게 운영 등)
- ⑤ 시간제 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 ⑥ 농업 임금노동(품삯 노동 포함)
- ⑥ 일반 직장 취업
- ⑦ 하고 싶지 않다

13-2. 위와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소득이 적어서
- ② 농사가 힘들어서
- ③ 내가 가진 재능(장점)을 활용하고 싶어서
- ④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 ⑤ 주변의 권유 (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 ⑥ 농사일이 좋아서
- ⑦ 기타(_____)

13-3.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 ()

- ①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
- ②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
- ③ 인맥(네트워크) 부족
- ④ 자본금 부족(토지 확보 어려움 포함)
- ⑤ 자신감 부족
- ⑥ 신체적 한계(병 또는 육체적 한계 포함)
- ⑦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⑧ 시간 부족(가사, 육아)
- ⑨ 농사일이 바빠 시간이 없음
- ⑩ 이동의 제한(교통불편, 이동수단이 없음)
- ⑪ 해당사항 없음
- ⑫ 기타(_____)

14. 귀댁의 가구원 전체의 소득(농업 판매액, 농업 이외 경제활동 소득, 이자 소득, 부동산소득, 연금,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의 합) 중에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농업소득 없음 ② 10% 미만 ③ 10~25%
- ④ 25~50% ⑤ 50~75% ⑥ 75% 이상

14-1. 귀댁 가구원 전체의 지난 1년간 소득 합계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 ① 500만 원 미만 ② 500만~1,000만 원 미만
- ③ 1,000만~1,500만 원 미만 ④ 1,500만~2,000만 원 미만
- ⑤ 2,000만~3,000만 원 미만 ⑥ 3,000만~4,000만 원 미만
- ⑦ 4,000만~5,000만 원 미만 ⑧ 5,000만~6,000만 원 미만
- ⑨ 6,000만~7,000만 원 미만 ⑩ 7,000만~8,000만 원 미만
- ⑪ 8,000만~1억 원 미만 ⑫ 1억 원 이상

14-2. 귀농·귀촌 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귀댁의 소득은 변화하였습니까? ()

- ① 크게 감소 ② 조금 감소 ③ 큰 변화 없음
- ④ 조금 증가 ⑤ 크게 증가

14-3. 귀댁의 소득은 앞으로 어떤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① 크게 감소 ② 조금 감소 ③ 큰 변화 없음
- ④ 조금 증가 ⑤ 크게 증가

□ 지역사회 생활

15. 귀하는 마을주민들과는 얼마나 자주 왕래하십니까? ()

- ① 매일 ② 주 1회 이상 ③ 월 1회 이상
- ④ 연 3~4차례 ⑤ 거의 왕래 안 함

16. 귀하는 귀농·귀촌 이후 마을주민들과 갈등(말다툼, 싸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 ()

- ① 갈등이 전혀 없었음
- ② 집이나 땅 문제 등의 재산권 침해
- ③ 농촌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 ④ 마을 일이나 모임의 참여 문제
- ⑤ 도시적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 ⑥ 영농방식의 차이 때문
- ⑦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
- ⑧ 마을 비전과 운영방식의 차이로
- ⑨ 기타(_____)

17. 귀하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지역사회 모임은 무엇입니까?

- ① 없음
- ② 있음(구체적 명칭: _____)

17-1. 귀하는 다음 같은 지역의 모임이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지역 모임이나 활동	전혀 참여 안 함	거의 참여 안 함	가끔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
마을 회의나 행사(반상회 등)	①	②	③	④
마을 내 영농 관련 경제활동(영농조합, 작목반)	①	②	③	④
지역사회 공익 봉사활동(자활기관, 공부방, 도서관)	①	②	③	④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여가 문화활동(동호회)	①	②	③	④
지역 농민단체(농민회, 한농연 등)	①	②	③	④
친목단체(계, 동문회 모임 등)	①	②	③	④
종교 활동	①	②	③	④
지역의 농업인 교육(농업인 대학 등)	①	②	③	④
지역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행사	①	②	③	④

17-2. 귀하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① 친목 도모
 - ② 자아실현(취미, 재능개발)
 - ③ 여가 활동
 - ④ 사회 봉사
 - ⑤ 사회적 인맥 확대
 - ⑥ 경제적 도움을 얻으려고

19. 다음 항목들에 대해 귀하는 스스로 얼마나 성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귀농·귀촌해서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얻는 데 성공했다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소득과 안정에 성공했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 후 원만한 가족관계와 화합을 얻는 데 성공했다	①	②	③	④	⑤
마을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데 성공했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와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성공했다	①	②	③	④	⑤
귀농 전 경험과 전문역량을 활용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데 성공했다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는 도시로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아직 모르겠다
- ④ 조금 있다 ⑤ 매우 많다

20-1. (④, ⑤ 번 응답자만) 귀하가 이주를 계획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 ① 1년 이내 ② 1년~3년 이내 ③ 3년~5년 이내
- ④ 5년 이후 ⑤ 미확정

20-2. (④, ⑤ 번 응답자만) 귀하가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② 주택문제(노후, 규모, 시설) 때문에
- ③ 자녀교육 때문에 ④ 생활편의시설 때문(시장, 병원, 문화터 등)
- ⑤ 마을 주민과의 불화 ⑥ 사업·직장 이동 때문에
- ⑦ 환경오염 때문에 ⑧ 기타()

P5. 귀하의 최종학력(중퇴 포함)은? ()

-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P6. 귀하는 농업계학교를 졸업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

- ① 아니오 ② 농고 졸 ③ 농대 졸

- 수고하셨습니다. -

연구자료 D392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1차년도(2014)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2.

발 행 2014. 12.

발행인 최 세 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식회사 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02-2269-9917 e-mail: admin@han-d.co.kr

ISBN 978-89-480-3118-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